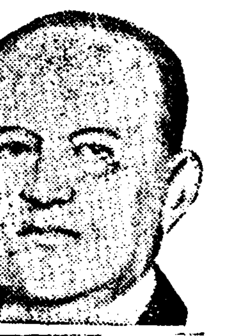
朝鮮日報
夕刊 (火)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洪[illegible]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illegible]

國境侵犯事實列擧
日本政府에 抗議
近來에 업든 强硬한 字句使用
蘇聯邦政府에서 公表



【電通莫斯科一日發】蘇聯政府는 最近의 蘇滿國境侵犯事件에 關하야 東京駐在 유레니에프大使로하여금 一日 日本政府에 對하야 가장 嚴重한 抗議通牒을 提出케하엿다는 旨를 公表하엿다 抗議書는 最近 日滿軍隊와 艦船이 蘇聯의 領土及 領內水路에 侵入한 八事件을 列擧하고 右는 모다 日本政府가 直接責任을 負할것으로서 이事件이 頻發하는것은 日蘇國交上重大한 結果를 惹起할 憂慮가잇다고 指摘하야 近來에 업든强硬한 字句를 使用한것인데 右抗議書의 內容은 如左하다

一、最近 頻頻한 日滿軍隊와艦船의 蘇聯領土及 領內水路侵犯事件은 日蘇國交上 重大한 結果를 生할것이라고 信한다 蘇聯政府는 유레니에프駐日大使에게 對하야 日滿軍事當局의 行動에對하야 抗議하고그 責任은 日本政府가 負할것이라는것을 通告하는 權限을與하엿다

一、蘇聯政府는 日滿艦船의 蘇聯領內 水路航行을 許할수업는것과 또는 萬若 모든 警告를 無視하고 蘇聯領內에들어왓슬때에 그結果에 對한責任은 日滿政府當局이 負할것이라는것을 유레니에프駐日大使를 通하야 日本政府에 通告한다

一、將來 日滿軍隊가 蘇聯領土를 侵犯한 境遇에 그責任은 直接 日本政府가 負할것이다

一、蘇滿國境의 日滿軍事當局의 行動은 危險 또는 許容할수업는것으로 蘇聯政府는 國境地方의 平和的 關係를 維持하고 日滿軍事當局의 挑戰的行動을 阻止하기 爲하야 速히斷乎한處置를取할意思가잇다는것을 通告하려는것이다 (寫眞은 유蘇聯大使)

對日抗議通牒은 日蘇會談의 牽制策
倫敦外交界의 解釋

【電通倫敦一日發】蘇聯政府當局이 一日 發表한 對日抗議通牒은倫敦外交界의 注目을 集中하야 그用語의 極히 峻烈한것을 指摘하고

右는 蘇聯軍의 國境集中機會를──遷延케하는 意向을 開陳하는것으로 信憑된다고하고잇다

그리고 多數의 國境紛爭事件을 一回에 羅列하야 抗議를 發表한것은目下 協議中인 廣田 유레니에프會談에 對한 牽制工作인 意思를 多分히 包含한것이로보이는데 如何든蘇聯國境의暗實一掃가 極히 困難할것이라는 印象을널리주고잇다

蘇聯의 抗議와 陸軍當局의 意向

【電通東京電話】駐日蘇聯大使유레니에프氏가 一日外務省에 提出하엿다고 稱하는 抗議에對하야 陸軍에서는 如左한 意向을 表明하엿다

陸軍에는 아직 何等報告가업스므로 抗議內容이 如何한性質의것인지 不明이다 要컨대 日滿軍의 國境侵害라는것은蘇聯側이 任意로 主張하고잇는 事例로 水路內에 滿洲國의船舶이 侵入하엿다는것일것이다 日滿兩國으로서는 誠意로써國境侵害가업도록 愼重히 注意하고잇스므로 蘇聯側이 말하는것가튼일은 絶對로잇슬수업는일이다 유레니에프大使가外務省에 抗議한것이 一日이라면 陸軍에도 即時通知가잇슬터인데 通知가업는것을보니 抗議를 發하기前에 新聞에發表하야宣傳效果를 多大케하려는 蘇聯一流의 卑劣手段이라고보인다 기피생각하면 目的은 他에잇는敵本主義가 아닌가한다

英國下院에서 北中問題論難
一議員,日本의內蒙進出指摘

【倫敦一日發聯合】英國下院 一日午後의 質問時間에 保守黨議員 모링氏는 北中情勢에 對하야 日中兩國政府間에 新協定이締結되엇다는 報道가잇는데 外相은 北中에 잇는 英國의權益擁保의 見地에서 新協定이締結된 境遇에는 英國政府에 通告하도록 日中兩國政府에要請하는것이 어떠냐고 質問한데對하야 호어外相은 現下의 情勢에對하야 如斯한必要는 업다는旨를 言明하고 如左히答하얏다

北中情勢에對해서는 日中兩國政府는 各各自國駐箚의 英國大使에게對하야 刻刻으로 推移를 通告하고잇는것은 勿論 日中兩方面의 英國權益擁保에 留意하고잇는데 非常事態가 發生하지안는限 다시 日中兩國政府에對하야 通告를 要請할 必要는업다고생각한다

모링氏는 다시 日本의 內蒙古進出을 指摘하고 政府의方針을 質問하엿던바 호어外相은 如左히 答辯하엿다

最近 內蒙古에 日本軍使節의 派遣과 日本無電臺設置의 議가잇다고 傳하나 手中에들어온 情報에依하야 判斷하면 英國政府로서는 特히 어떠한行動에 出할 必要는 업다고생각한다

◇…꿋의巴里가 暗黑街가된 大規模의 防空大練習光景

話題解說
尼港事件

◇今回 政府는 二百五十餘名으로써 尼港及 오호츠크事變에 依한 被害者의 救濟及 救恤을 하게되엇다고한다 그러면 尼港事件이라는것이 어떠한 것이엇던가 잠간 알어보기로하자

◇尼港은 即 니콜라이엡스크(Nikolaievsk)港이니 沿海州黑龍江口內에잇다 大正九年三月中旬으로부터 五月下旬까지에 同地의露國過激派軍(볼세비키)이 日本人 約七百名을 虐殺한 事件이엇스니 이것이 尼港事件이다 同年一月 露國에서 反革命政府의 沒落後 過激派의 活動이 猖獗을極하야 過激派에 屬한 一隊는 黑龍江沿岸의 同志를糾合하야 北上하야 尼港附近에 肉迫하엿다 當時에 尼港에는 步兵少佐 石川正雅氏가 引率한 陸軍守備隊約一四〇名、海軍少佐 石川光儀氏가 引率한 海軍無線電信隊四十二名 其他 居留日本人의 自警團으로써 警戒에 當하고잇섯든바 一月下旬에至하야 過激派빨리잔軍은 차츰 라프코를 奪取하고 二月에는 日本電信所를 破壞하고 드되어 日本領事館 守備隊本部에도 砲火를 加하게되엇다

◇그러다음 同月二十八日에 兩軍間에 協定이 成立하야 過激派는 入市하야 政權을 掌握하게되엇는데 그後 그들은 協定을 無視하고 露滿官吏의 捕縛 其他의 掠奪虐殺을 恣行하야 三月十一日에는 日本守備隊本部에 武裝解除를 要求하는等 橫暴를 極하엿다 이에 日本守備隊는 機先을 制하려고 十二日 午前一時에 斷然 出動하야 빨리잔의 司令部를 包圍攻擊하엿스나 成功하지못하고 守備隊는 兵舍에 돌어가고 海軍無電信隊는 退却하야 領事館에 退却하엿는데 빨리잔은 全市에 動員하야 日本領事館에 殺到하엿다 日本領事館은 衆寡不敵으로 悲壯한 苦鬪를 하엿스나 … 燒却하고 모다 戰死하엿다 駐在武官三宅少佐、副領事石川氏及家族도 悲壯한最後를 마치다 一方 守備隊는 兵舍를 死守코 五晝夜동안 奮戰하엿는데 十七日에 在하바롭스크日本官憲의 停戰命令에 接한 電報가 來着하야 武裝解除를 하엿다 그러나 五月下旬 救援隊來着의 報가오자 모다 殺戮을 當하게되엇다 本國으로부터 救援隊가 出動하고 臨時海軍派遣隊及 第三艦隊도 이에 協力하엿스나 六月初에 救援隊가 同地에 到着하엿슬때에는 全市는 灰燼에 歸하고 過激派幹部等은 逃走한後이엇다。

羅國外相巴里着

【巴里一日發聯合】루마니아外相티툴레스쿠氏는 一日巴里에 到着하는即時로 라발首相、外務次官과會見하고 무어인지 協議하엿다

伊首相과의 會談을
이든氏公式發表

【倫敦一日發聯合】無任所相이든氏는 一日午後의 下院에 臨하야 巴里及羅馬訪問에對하야 비로소 公式發表를行하엿는데 特히 뭇솔리니首相과 에디오피아問題에對하야 懇談을거듭한點에言及하야 나는 英國政府의 最後的解決方式으로 에디오피아에 對하야 英領소말릴랜드의 海峽接續地를與하야 에디오피아에海港利用의便宜를 與하는同時에에디오피아로하여곰 伊太利政府의 要求를某程度까지 容認시키려고하엿는데 뭇솔리니首相은 끗까지 第三者의 介入을 排擊하고 此際에 最後的提案도拒絶하엿다라고報告하엿다

海軍軍縮 本會議不成立時
七隻의代艦建造
明年一月까지 艦齡超過主力艦七隻
米國海軍當局의方針

【紐育一日發聯合】米國海軍當局은 將來할 海軍軍縮本會議의成否與否의 境遇에 對應코저 米國의 建艦方針을 鋭意研究中인바 米國官邊의 消息으로 軍司令部에서는 本問題를 研究한 結果、一九三七年一月에 艦齡을超過하는 主力艦은 七隻에 達하므로 新條約이 不成立될境遇에는 每年一隻式 代艦建造를 行하려는것이다 그러나 米國海軍當局은 倫敦條約의 限度를 넘어서 建艦할 意向은업다고 하고잇다 (寫眞은 스완슨長官)

國府宋哲元氏를 綏靖公署主任에任命

【天津一日發聯合】國民政府는前察哈爾省政府主席 宋哲元氏를 새로히 綏靖公署主任에 任命할 方針을 決定하야 同氏의 內意를 探하고잇는데 宋哲元氏가 河北省을 包含하는 綏靖公署 主任就任을 希望하고잇스므로 結局 宋哲元氏의希望대로實現될터이다

回訓到着으로 有吉大使嚴重抗議

【上海一日發聯合】雜誌新生의不敬記事件에關하야 一日本省의 回訓이 到着하얏스므로 有吉大使는드듸어 近近南京에赴하야國民政府에對하야 嚴重抗議키로決定하엿다

孔祥熙氏
磯谷武官과會見
代理就任人事

【電通上海一日發】行政院長을代理키로된 孔祥熙氏는 一日午後十一時의 列車로 南京에 向하엿는데 이에압서 午後五時 佛國租界의 私邸에서 大使館附武官 磯谷少將 影佐中佐 林陸戰隊長等과 會見하고 行政院長代理就任人事를하고、最近의 日中諸問題에對하야 約一時間동안懇談的으로 意見을 交換하엿다

在比米綿業保護案
米國上院에提出!
第三國製品壓迫이目的

【東京電話聯合】一日 齋藤駐米大使로부터 外務省에 到着한電報에依하면마사추세츠州選出上議民主黨議員월슈氏는 二十六日比島市場의 米國綿業保護에 關한 決議案을 上院에 提出하엿다。右決議案의 內容은 如左히 米比島의 將來에 對해서는 重大性을 가진것으로 注目된다。米國綿製品의 比島輸出의 激減은 第三國製品의 結果이므로 比島政廳은 米比特殊關係에 卽하야 此際에 米國綿製品輸入에關하야 保護를加할것으로 期待된다 따라서大統領은 比島議院開會中米國綿業保護의 手段을 採擇하도록 要請함을 要한다

北中經濟블럭結成
具體的大綱決定
日滿中三國資本을糾合하야
一大合辦會社를成立

【電通新京一日發】滿洲國政府에서는 北中事件解決後 特派한財政部囑託高橋龜吉氏及 實業部美濃部文書課長의 報告와 土肥原少將의 意見에 基하야 停戰區域內의 日滿中經濟블럭結成에拍車를加하야 이具體化를 圖하려고 萬般의 準備研究를 進行中인데 今日까지의 關東軍、滿鐵、東拓等과의 聯合協議會의結果 大體의 具體的大綱을決定하엿다 따라서 即時各中央政府及 各財閥과의 交涉에 進出할터인데 內容은 日本內地는勿論、滿洲와 中國의 資本을 糾合한 一大投資會社를設立하려는것으로 日滿中經濟블럭의 最初의 具體的實現이라고 注目을 끌고잇다 即

具體案大綱

一、北支의鑛業、商業、工業、農業等의開發發展에 對하야總括的投資를할것

一、投資會社를設立하고 그리고 右會社는 純然한投資機關으로하야滿鐵、東拓等 特殊會社의 參加는 勿論 널리日本內地大資本의 參加를求할것

一、右投資會社를母體로하고 또는産業別로 業務에當할事業會社를設立하야 此等會社는 專혀日中合辦으로하야 日本側은資本을내고 中國側은現物出資로하는데 이境遇에現在의未營業中인合辦會社는 이것을改組擴充하야 當該事業에 當케할것

一、그리고北中資源과 産業現情에 照하야 右事業會社、中核되는事業은 鑛山、交通、貿易、棉花栽培의四事業으로한다

가、鑛山、가장 重要視할것은石炭으로 山西省東北地方은 거의 全體가 炭田으로 現在의 出産額은 北中만으로도 全中의 六割을 産出한다 石炭會社의 母體로는 이미 山東鑛業會社가잇다

나、交通、經濟開發의 根幹이되고 또 治安維持의 動脈이되는 交通은 專혀 山西省察哈爾省等 未開發地에 主力을 注할것 이境遇에 이미設立을 본 東方旅行社의 擴充、中國鐵道敷設權等이 考慮되고잇다

다、貿易、滿洲事變後 滿洲及蒙古를 히터런드로한 北中貿易事業의 衰微는 現著한것이잇스므로 同地方에의 交通復活에 努力하고 天津其他重要貿易地의 繁榮을 圖할것

二、棉花栽培、現在山東의 滿鐵의 棉花栽培融資를 資本으로 將來日本에의 棉花需給에까지 推進할것

中國大使、歸國압두고
陸相의意向打診
陸相은二重態度淸算要望

【東京電話聯合】南京政府의 對日態度를 更正할重大會議에 出席하기爲하야 一個月後로 豫定으로近近歸國할 駐日中華民國大使 蔣作賓氏는 一日午後二時 陸相官邸로 林陸相을訪問하고 歸國人事를하는同時에 陸相의對中方針을打診하야 會談二十分에 辭去하얏다 右會談에서 林陸相은 蔣大使에게 對하야 日中國交調整은 日本의 希望하는바이나 中國側의 對日態度是正이 根本問題로 中國이 참으로日中兩國國交의 調整을 願하면 먼저對日二重態度를淸算하고排日態度와 如한것을全面的으로 撤消할誠意를 披瀝할것이다 라고陸軍의所信을 率直히 披瀝하야 中國側의反省을 促하고 蔣大使는 이것을諒解하엿다는뜻을 答하엿는데 蔣大使가 歸國에압서特히 陸軍의態度動向을打診한것은 重視되고잇다

汪精衛氏臥病으로
國府外交陣容에 大異變
行政院長外交部長의事務代行
孔祥熙氏로決定

【電通上海一日發】行政院長汪精衛氏는 宿病인 附石에서 膽囊炎을 併發하야 外人醫師늘氏의 勸告로 病臥한대로 一日朝七時着列車로 來滬하야 即時 늘氏의 病院에 入院하엿다 病狀은 相當히 重態이다 늘氏는 汪氏의 病狀에對하야 如左히 談話를 發表하엿다

宿病인 胆石이 最近 胆囊炎을 併發하야 이것이 胆囊症에 變할 憂慮가잇슴으로 上海에서 治療하도록 勸하엿다 政務를떠나서 數週間을 費하야 根本的으로 治療치안흐면 生命危險을 招來하는重病이다

【電通上海一日發】汪精衛氏病狀에對하야 同氏側近者는「一週間乃至十日間 治療하면 政務를 보게될수잇슬것이다」라고말하고잇스나 主治醫의 發表에依하면 胆囊炎을 併發하야 三十八度七分의熱이잇서 一個月間은 絶對安靜을 要한다고한다 또 國民政府部內에서는 萬若 汪氏의 病狀이 再起不可能하게되다면 國民政府의 外交陣容에 大異變을 招來하게되고 따라서 日中關係에도 重大異變을 招來할것이라고 各方面에서 憂慮하고잇다

【電通上海一日發】汪精衛氏는相當長期間의 治療가 必要하므로 그동안 行政院長의 職은 副院長現財政部長孔祥熙氏가 一切代理執行하기로 決定하엿다

【電通南京一日發】國民政府行政院長 汪精衛氏가 病으로 當分政務를볼수업게되엿스므로 目下上海에잇는 財政部長兼行政院副院長 孔祥熙氏를 代理로 任命하야 行政院長의 事務를 執行케하고 外交部長에는 唐有壬氏로하여곰 代行케하기로 正式決定하엿다

漁業組合改正에
蘇聯側相當接近
廣田카라한協定의延長承認
年限問題는아직固執

【電通東京電話】日蘇漁業條約改訂에 關하야 政府는 去六月十七日 在莫斯科酒勻參事官을 通하야 莫斯科政府에 對하야 覺書를 提出하고 日本政府의 主張을 明白히하엿는데 一日 太田大使로부터 外務省에 達한公電에 依하면 蘇聯側은 去二十八日의 第二回酒勻、카즈름스키會談에서 右覺書에對하야 回答을 提內하엿다 그內容은 大要如左하다

一、漁區安全의 點에對해서는日本側의 提出을 原則으로 承認하고 廣田、카라한協定의延長을 認定한다 但 그年限은 日本側의 主張인 十二年에는 贊成할수업다

一、交涉範圍는日本側의 提案事項을 中心으로하고其他의事項에는 미치지아니할것을 承認하나 借區料의支拂方法、魚族保護等에關해서는 若干의希望條項을 提出하엿다

一、競爭制의廢止에 對해서는何等 回答을 하지아니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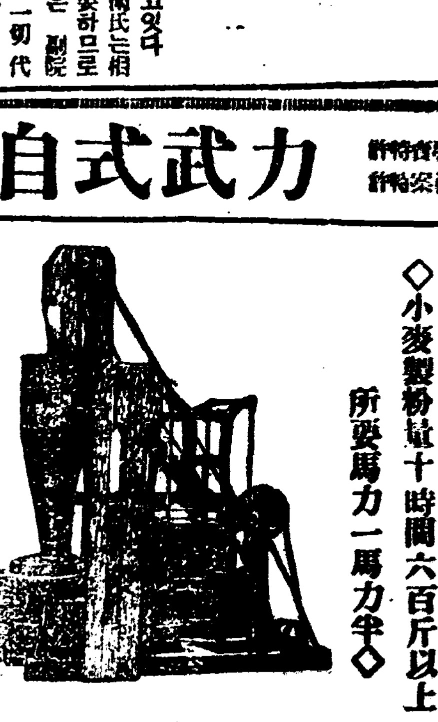
그리고 外務當局은 右에基하야 蘇聯側에서 提出한細目的希望條項에對하야 愼重審議를 遂한後 近日中에 廣田外相이太田大使에게訓電을發하야 第三回酒勻、카즈름스키會談을 行케할 豫定이다 今回의回答에서 蘇聯側은 日本主張에對하야 相當히 接近해왓스나 廣田、카라한協定의 延長期限에對해서는 日本의 十二年에對하야 蘇聯側은 三年乃至五年을 固執하고잇는모양이므로 交涉成立까지에는 相當한 時日을 要할것으로 보인다

人事·集會

▲林之鎬氏(實生活社主幹)本社新築落成祝賀人事次來社
▲沈壽官氏 同上
▲에미르·마델氏(白耳義名譽領事) 同上
▲崔泰植氏(鮮滿鑛商時報社社長)同上
▲金麗植氏(協成實業學校長)同上
▲崔周永氏(瀋陽郡守)新任人事次來社

八面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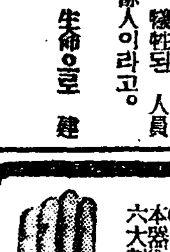
◇장마에 집을 일흔 京都朝鮮人들은 惡疫의 流行으로 死線에서 彷徨한다고。
◇그들에게 따뜻한 방한칸、배아리 藥한貼 줄이는 업는가。
◇長津水電工事에 犧牲된 人員이 無慮 三千餘人이라고。
◇그야말로 피와 生命으로 建設되는것이로군。
◇蘇聯서는 日本이 蘇領을 侵犯치 안는다는 確保만 잇스면 北樺太까지라도 讓與하리라고。
◇旣往 공으로 어든 願原이니 좀 잘라주기어든 어떠리。
◇에디오피아陸相、一朝有事時엔 九十萬大兵을 動員하리라고豪語。
◇小國이나 大丈夫의 抱負가그럴듯。

農林省比較審査 最高甲位入選
農林省農事試驗場 御買上光榮
專賣特許 新案特許
力武式自動製粉機
◇小麥製粉量十時間六百斤以上 所要馬力一馬力半◇

【實物寫眞】
本機ノ用途 小麥、米、蕎麥、其他、穀物一切、豚飼、養鷄飼料、染料 藥品、苦椒等 製粉ニ 最適ス
鮮滿總發賣元 株式會社 山岡發動機京城支店 京城驛前 電本局一〇〇三
南鮮特約店 釜山大倉町 加藤商會機械部 大邱達城町 大林農具製作所

콜럼비아레코-드 蓄音機
Columbia
樂器界의重鎭이고、樂器店으로元祖인
平壤南門通 常信樂器店

「寫眞은」(平壤鍾路・常信樂器店)
여러분들의試聽室로!! 오시어試聽하시요!!
平壤鍾路 常信樂器店 電話一七三三番

當選謝禮
振威郡浦升面協議會員
李敏變 崔文植
崔在和 李敏常
李敏石

政府允許 六方醫法器 絶對療法

◎神奇한療法으로써現下白熱的好評… ◎一指의處에… 本器는術者의身體에裝置하야서 … 六大刺戟을放射 … (說明書無代進呈)
名古屋市東區 … 醫聖閣

創立明治參拾貳年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支店 [illegible]
出張所 [illegible]

一萬罹災民中에 千餘名은無依彷徨

京都市朝鮮人의水害慘澹

傳染病까지多數發生

【京都支局發電】이번경도지방을 습래한 대홍수로말미아마 경도시우경구(右京區)하경구(下京區) 일대에 거주하는조선동포의 피해는실로 막대하여이재민 이만여명을내엿다 그중계천(桂川)이 범람하는통에 그냇가에빠락을 임시로 세우고살든 길상원일지단(吉祥院一之段)동포부락은전부가시여 혹는 전부거처할곳에싸혀 잇게 되엿고 또태진안정송본정(太秦安井、松本町)부근에잇는 천신천(天神川)도 범람되어 독이러지는통에 사십여호가 입시에전부 류실 되엿는데 풍우중에서 피난동포들의 아비규환의 소리는 실로듯기에 처참하엿다 그리고 피난민천여명은 동지거류동포로조직된 위생조합과가경야학(佳京夜學)의직원들이 전력을 다해서 수시간학교와경기를데수용햇스나 원체비한한동포들이라 의식이전혀곤란한데다가 설상에가상으로 각종전염병환자까지발생되서극히참담한상태에 빠저잇다

模範的인相互扶助 千餘窮農을救濟

洞民이結束하야農糧을貸附與

明川郡下阿間面有志의熱誠

【阿間】함북명천군아간면(明川郡阿間面)지방은 의년의흉작으로 말미아마 일반세농민의 생활은 벌서해빙기이래로 극도의궁핍을 전하엿는데 특히이현상은 산간부락이우심하야 춘경기를 전후하여는 각지의로동시장 또는만주방면으로 리산된농가 상당한수에 달하는중 남아잇는 사람들도 요지음의 맥령을 압두고는 절량된자가 무려사오백호에달하야 당국의구제노력도 결국은 홍로점설에 불과하는상태이여서 그들궁농민의 참상은실로 목불인견인 현상인데 이틈을 궁민의 약점을 리용하야 일부상인 간에는 여러가지 악덕한수단으로 무리한 착취수단을쓰는까닭에 이현상을 개탄하야각동리마다 몸소자그의 약한힘을 불고하고 희생자으로 그들구제에 나선 독지가가 만히나타나게되엿는바 그방법은 대개 일인홍은수상인이 렴세한자그토지를 금융조합에 저당하고 빗을내여 동리궁농가에 농량을싸서 두엇다가 금년농사를 타작하는대로 판제케하는것으로 개중에는몸소리식을 부담하고드는이도잇다한다 이처럼하야 당지금융조합에서 대출된금액이 일천팔백원에달하며 이로말미암아 구제바든농가는 그가족을 합하야 일천사백명에 달하야 일반의칭송이 자자한터이다 이제저들독지가의 씨명을 렬긔하면 아래와갓다한다。

▲老松洞朴興今▲楊亭洞千得萬▲龍湖洞朴丙獸▲沙洞金正石▲背舍洞許城 全二龍▲新盛洞安七龍▲龍湖洞尹龍山▲金洞勳

中央佛專學生團

關北과湖南地方으로 夏期巡廻講演開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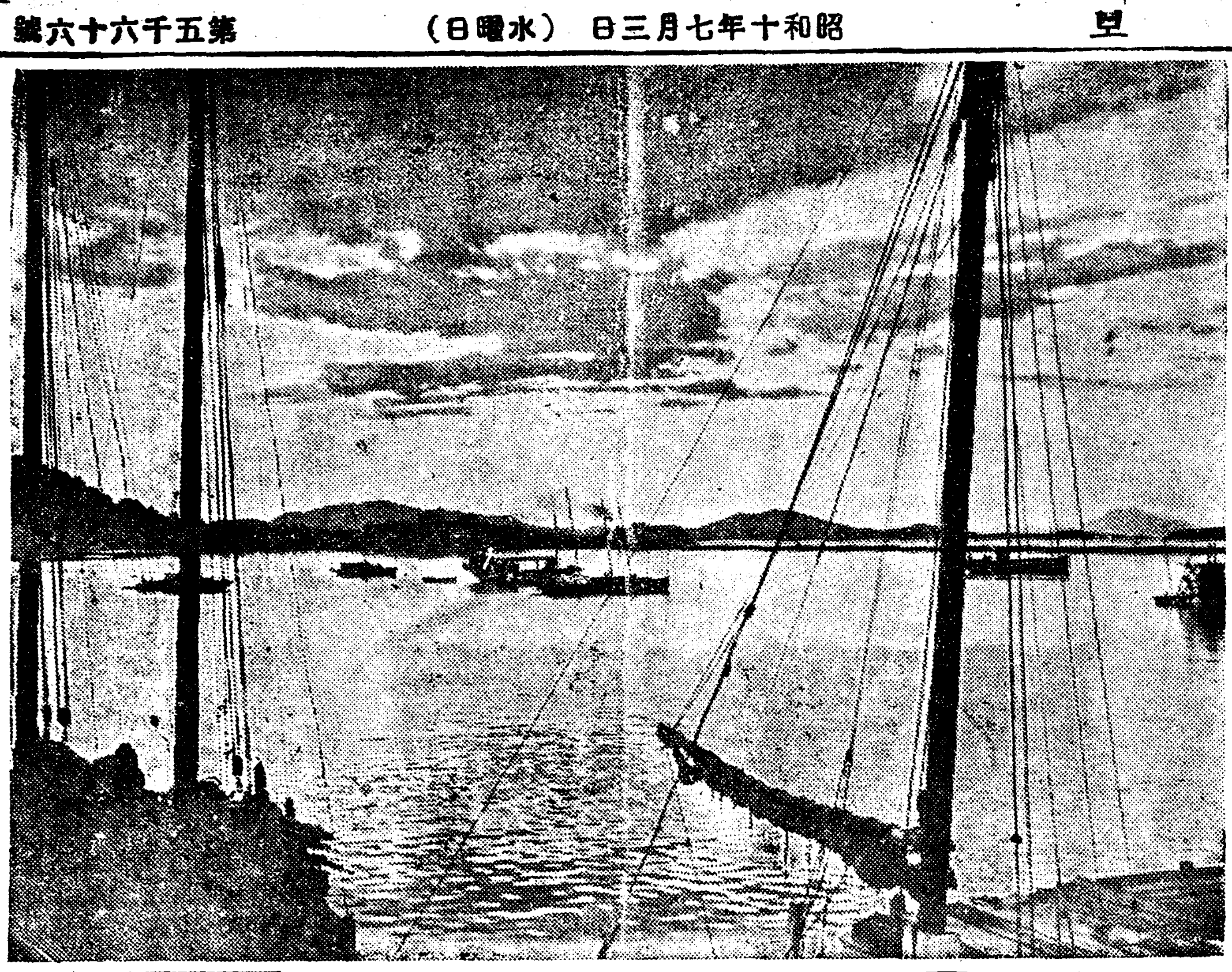
부내숭이동(崇二洞)중앙불교전문학교(中央佛專)학생회에서는 금번하긔휴가를 이용해서 동교종교부주최로 제이회하기 순회강연을할터인데 금번에는 관북(關北)호남(湖南)지방에만 국한하기로되엿다한다 그리고그프로그람은 다음과 갓다

一、時日 自七月七日 至七月十五日

一、演士 ▲關北班—洪元植 李鳳洙 吳載一 ▲湖南班—韓 安璟 嚴成敎 張元奎

奉天省阿片耕作部落轉業

봉천성미곡구(美穀區)에는 조선인일백여호 백여명이 계주하야 금지하는아편경작을 하고잇서 일만당국에서는 아편전매상 또는아편취체상 곤난함으로 작년이래 그들에게전업(轉業)을 식히려고 작년에는만주국에서 이만원보조금으로 상당한수의 보조금으로 농경자금을 동양척식회사를 통하야대부한결과 농우계(農牛契)를 조직하여가지고 일백이십오명이전부농업으로 전업하엿다한다



浦邊의落照 (昨日漢江에서)

大西洋航空路

飛行機를使用 八月末부터는開設

【유ー욕一日發聯合】「펑랑커ー」긔에의해서 대서양(大西洋)을 비행항공회사에서는오는팔월말경으로 그에의한 정기항공로를개설하기로되엿다 그처녀항공에는 대평양횡단비행에 선편(先鞭)을붙든 명비행가 「쨍」본씨가 최신식의「펑랑커ー」긔를 조종하여 단숨에대서양을횡단해서 「리버풀」에 착륙할예정이며 동긔의발표와함께 정원십팔명의 신혼자매명을태울것이라는데 대서양으로서 맛출내이항공로를개척하는때는 「뉴ー욕—리버ー풀」사이는 전후이주야만에 상하할수잇게될모양인바 거대한항공선「노ー마치ー」호의보다한 백획시간사십이분의 그기록은 갈착이 이묘지일이상이단축되며 패속공항의초특탑이 나타날것이라한다

平壤木工罷業

雙方妥協解決 賃金을多少引上하고

【平壤支局電話】지난이십오일부터 가구(家具)제조업종 인상요구조건을 고주측에 제출하고파업을 개시한평양목공조합소속로동자 이백오십여명은 그간지구전을계속하여오든바 일일오후네시에 평양부내춘일(春日)식당에서 조합측대표십명과 고주측대표여명이 모히여타협한결과 가장 중요조건되는 양보적한개제조임금 팔원오십전을 구원으로올리는동시에 기타요구도서로양보하게 되야 이일부터 이백오십여명로동자는 일제히 취업하엿다

任意選擧를憤慨 委員取消를申請

普專校友會決議實行委員選擧에對하야 許憲氏、態度를表明

지난유월십륙일 시외 안암리(安岩里)보성전문학교내에서 개최한 일부교우들의 회합에서본지기사에대하야 몃가지결의를하고 이결의사항의실행위원으로 열명의실행위원을 선거햇슴에 대하야 그위원중에한사람으로선거된 동교교우회원 허헌(許憲)씨는이는전연당자의의사가아닌동시에 그회합에서 본인의의사도 문의한바업시임의로선거한것이라하야이에분개한 허헌씨는 그동안수차 교우회당국에대하야 다음과가튼 실행위원선거의취소신청을하엿다고한다

去六月十六日 貴會臨時總會에서 朝鮮日報에對한 抗爭의 設置로本人을 共實行委員에選定하고 此를各新聞紙上에 發表케하얏스니 이는元來本人의 意思가아닐뿐이아니라 本人은此議決事項에 干與코저하지안음이니 貴會는速히 此選擧取消하는同時에來三日以內로 此旨를 各新聞에發表하야 世人의誤解를 一掃케하시기를伏望하나이다 敬具

追加陳情

貴校校友會長金用茂氏에게 이를要求하얏고 다시貴會責任者를만나라고 累次차젓스나 만날機會를 엇지못하얏기 玆에書面으로正式要求하는바이오니 貴會는 右記期日內로 自進取消하야주시면 萬幸일가하나이다

昭和十年七月一日

京城府八判洞一六六番地 許憲 白

普成專門學校校友會長 殿

普專校友會長 金用茂氏談

나는 보성전문학교교장의 지위에 잇는관계로 학교교우회의 가지고잇스나 일방으로 교우회일에는 전연 상관이 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허헌(許憲)씨의 위원선정된 경과내용도 어떠케 되엇는지 아지못하오그러나 허헌씨가 일부러 실행위원으로선거되엇을 취소한다는것은 나로서는 그를모교에대한반역행위라하겟습니다 일전에그의 따님으로부터도 나에게 전화로서 허헌씨의 위원되엇을 취소해달라는 교섭이잇섯스나 그때도 교우회에서 한일을 나는몰른다고대답하엿소

白放된李洙倬

八千圓報償金請求

무고하게감옥사리한대까로 每日三圓式二千九百日로計算

생사미판의 기로에서 청천백일의몸이된 리수탁(李洙倬)이 무죄석방됨의 푸로그람의 하나로 형사보상금 팔천팔백오십구원을 이일 영도(永島)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경성고등법원에 청구하엿다 이청구내용을보면 대정십삼년 이월삼십일 리수탁의 부친 리건호(李健鎬)가 충남강경(江景)유지택에서 감기약을먹고죽엇는데 그것이 당시 부랑자로서 준금치산선고를 밧고잇든 리수탁이 그약에다가아편을 너허 밀정이십일에 사망하엿다고 리건식의본처인조건식(趙健植)등이 경성지방법원에 고소를하여 소화이년오월 이십일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구류된이래 강옥사리를하엿다 그러나 그것은 리수탁의 재산을탐내이는자들의 순전한무고와 위증과 그리고 감정의착오로 그러케된것이엇스니 그중거로는 금번류월이십일 리수탁은 경성고등법원에서 무죄의언도를바더 백방이되엇다 그런데 최초에 리수탁이 구금된것이 이십칠세의청년이요 백만장자의독자로서 남부럽잔케 지내든리인데 앗가운 청춘십년을 미결감에서 보내며 더욱히 두번의사형선고를바든것은 크게정신상타격을 주엇든것이다 이와가티 이천구백오십삼일간 억울하게 더구나 불명예로히도 죽게존속인 부친을죽엿다는혐의를쓰고 그시일을지내왓스니 모든혐의가벗서저 무죄백방이되엇을날에는 국가로서 맛당히 그에대한 보상이잇서야할것이니 전기날수로써 매일삼원식계산하야 팔천팔백오십구원을 주어야하겟다는것이다

中央高普生 朴尙鎭等控訴

중앙고보(中央高普)의학원소요사건의일부분으로써 지난二月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팔월의 언도를바든가운데전보제(全輔濟) 박상진(朴尙鎭)의원명은 지난류월이십구일불복공소를하엿다 그리고가치공소한전민수(田敏秀)는 공소를취하하고복역하기로하엿다

咸鏡線轢死二件

일일정오경에 함경선국동(國洞)조역산(造幣山)사이선로우에어떤사람이 치여죽은것을발견하고조사한결과 그는함북명천군동면암동(明川郡東面暗洞)의 셋째아들고기선(高基先)김성복(金成福)의 (六)으로판명되야 시체는가족에게인도되엿스며 또이일계정리현간(鋼井鶴嶺)선로상에 이십삼세가량의 조선녀자록사체를 발견하고조사중이나 신원이불명하다고한다

大川等九月判決

【東京電話聯合】오일오 (五·一五)사건의종범관계피의자 대천주명(大川周明)두산수삼(頭山秀三)본간헌일랑(本間憲一郞)등삼인에관한 폭약물취체위반사건은 대심원 청수(淸水)재판장계에서 심리하든중 일일오후두시개정되여강전 장 영목(岡田庄鈴木)등각변호사는 먼저번에진술한책정(柵町)검사의변인상고에대한변박에대해서 반박해서 어디까지든지내란죄적용을 강조하고오후다섯시에 폐정햇는데 지난오월이십삼일이래 십수회에빠처심리를맛추고 판결언도는 구월이십륙일로결정햇다한다

交通網國營前提로 自動車線買收計畫

國境等地重要線買收코저 報償方法等을研究中

교통긔관을 국영으로할원측하에 총독부에서는 자동차선로의 대부분도 점차합동통제하야 순전히 국영으로하거나 또는관민공동경영으로하야 점차국가적통제를하려고 계획중이라함은 긔보한바와갓거니와 최근이계획은 점차구체화하야 우선중요한간선부터 국영화를도모하게되야 이미매수에대한 보상문제등을연구하고잇다한다 즉함북의 청진(淸津) 라진(羅津) 웅긔(雄基)의 각선로와 또경성인천(京仁)간 압록강연안선로등의 중요선로를 국영으로할지 요를 인정하고 방금구체적조사를하고잇다 근래도로의 개수와 자동차 사업령의 실시등에의하야 자동차교통사업이 국히편리하여젓슴에 불구하고 군소업자는영리에만급급하야 임금의인하지안코며 또철도 기타와의 협조도 불충분하야 운전상의 련락도 불충분한 것으로 우선중요선로부터 국영화하야 화물과려객의 편이를 도모하는일방교통긔관전체의 통제를강화하려는것인데 이외가튼 회사긔적교통긔관의통제를 계획하게되리면에는 군사적이미도만히포함된것이다

滿洲에土地投資 今年에만卅七萬圓

年年히增加하는中

만주사변이후에 만주에서 조선인의 각종긔업이 만히발흥하는중 주목할만한것은 조선내의토지자본가가 만주에서 토지를매수하야 농토로개발하고잇는것으로 투자금액을보면 소화팔년중에오만원 구년도에십칠만사천원 십년도에삼십칠만칠천원 합계오십구만칠천원에 달하는바 지역적으로보면 신경(新京)도문(圖們)할빈(哈爾賓)목단강(牧丹江)등지이고 투자가의출신도를보면 경긔도 경남북 전남등지의토지자본들이라한다

在滿朝鮮人 農業이七割

商業經營者는二割

소화구년칠월부터 십년사월까지의 조선에서 만주국으로간자유이민은일천팔백호 사천백오십륙인으로그중농업이칠할 상업이이할로오 동이일할인바 비적의도량으로오지의경작을방치하고 철도연선의 시가지로 집중하는경향이잇는데 이를가도별로표시하면여좌하다

▲平北 五九五戶 二七〇〇人▲平南 七八戶 二八二人▲咸北 五九戶 一九八人▲咸南 一二〇戶 四一七人▲黃海 二九戶 一二五人▲京畿 二〇戶 八五人▲忠北 六戶 二〇人▲全南 九戶 二九人▲慶北 五八戶 一八五人▲慶南 一六戶 五八人▲江原 一五戶 五七人

天氣豫報

曇時時晴

高氣壓은 小笠原島附近의 海上에 擴大되여잇스나 其勢는 弱하고滿洲朝鮮方面의 氣壓配置는 大體로 緩慢하며 九州西方에는 弱한低氣壓이잇다朝鮮은 흐리고滿洲는개이며關釜海峽에는때때비가온다 明日은晴曇不定하다

昨日 最高 二八度三 氣溫 最低 一七度四 今日 正午 二六度七

廿餘代表會議로 學院聯合創立

京城無産兒童爲해

가난한집 아동들의 배우는곳은 오직학원일것이다 서울장안에도 무산아동교육기관인학원이 삼십여학원이나 널려잇스나 학원간에련락과 모임이업고 교육、입학、퇴학、전학에잇서서도 각자의마음대로 하여왓기때문에 그외학원에서는 매우두통으로나려와섯든것이다 그리고 학원에는 일정한 규측이 서잇지를안키때문에 일반학부형과 배우는아동들까지라도 학원을 무의식으로 아는동시에 학원을 나의입의대로 할수가잇는것가티되여서 학원측에서는 벌서부터 이에방지책을 세우기로하엿든것이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아동제유장려 아동기능발휘、교수방법연구등을목적으로하고 시내 이십여학원대표자들이 회의를 세차례나거듭하여 지난류월삼십일에는 재경학원연합회창립총회를거행하엿다는데 재경학원연합회규측과 임원씨명은 다음과갓다고한다

理事長 金東圭 常務理事 崔聖奎 庶務 朴魯一 財務 崔一

運動競技

京拳과平拳의 對抗拳鬪

六日、平壤에서

【平壤】京城拳鬪會對平壤拳鬪俱樂部第一回 定期對抗아마튜어拳鬪戰은 本社平壤支局後援下에來六日午後八時半부터 平壤新陽里崇專體育館에서 開催할터인바實力伯仲한 兩軍의對戰은 벌서부터 非常한人氣를이끌고잇다

【푸라이級】 徐永祚(京) 趙永俊(平)
【빤탐級】 金德仁(京) 韓龍河(平)
【페더ー級】 徐廷麟(京) 鮮于濟(平) 文在善(京) 呂在德(平)
【라이트級】 金石崇(京) 李利植(平)

北朝鮮遠征의 延專野球大勝

七對一로咸興敗

【咸興】延專對全咸興野球戰은豫定보다 하로당기어 지난一日午後四時半부터 咸興公設球場에서 咸興軍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七對一로延專軍快勝하엿는데 이날의觀衆은 無慮三千餘에達하야大盛況을이루엇다

女子圓盤走高新記錄

【電通東京電話】第一回東京府女子中等學校陸上競技大會兼關東女子選手權第一次豫選大會는 三十日午後一時부터 學習院技場에서 行한바 同大會에서井部光枝孃(體專)은 圓盤投에 三七米四六을 또廣橋百合子孃(體專)은走高跳에 一米五二의 日本新記錄을지엇다

早大蹴球部滿洲에

早大蹴球部에서는 來八月三、四兩日間 新京에서열리는 第二回日滿蹴球試合에 出戰코저 一行은 七月廿二日神戶出帆의『우라루』丸으로 滿洲遠征을 떠나기로 되엿다는데 一行은 大連奉天、新京、吉林、哈爾賓 等地를 轉戰한後 八月中旬에朝鮮을經由하야 歸國할터이라한다

全英庭球準準決勝

【윔블든一日發聯合】全英庭球選手權大會男子單式準準決勝戰은一日皇后「메리ー」陛下台臨下에 擧行한바 成績은다음과갓다

메리ー(英)	九―七 六―一 六―一	멘젤(체코)
풍·그람(獨)	六―四 六―二 四―六 六―一	맥그라스(濠洲)
크로포드(濠洲)	六―四 六―三 六―八 五―七 六―一	웃드(米)
뻐지(米)	三―六 十―八 六―四 七―五	오ー스틴(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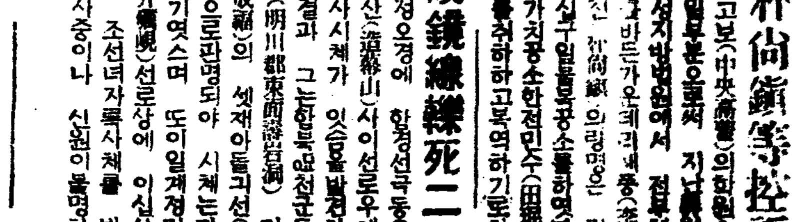
陸上의偉人 누루미選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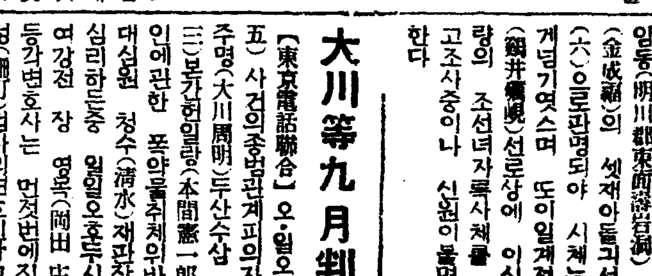
十年間의超記錄

陸上競技界의 巨人이라는威名을 듯는芬蘭의 長距離王『누루미』는 一九二〇年二十三歲때에『안트웹』에서열린 世界올림픽에 出場한것을『톱』으로 一九二一年부터는 世界一流에列하야 同三十一年까지十一年間十九回라는놀라운 記錄을남기엇다 이十九回의十五種中에는 아직도『누루미』가保有하고잇는 記錄이 八種目(左表中△印)이나된다 또世界올림픽의 決勝에出戰하기九回 그十回가운데 七回를優勝하엿고 남어지三回도二着以下에 떠러진적이업섯다 『누루미』는今年三十八歲에 記錄을다시 짓지는못한다해도 아직도健在하여잇는데左右間그가十年間에 그와가튼記錄을지엇다는것은 過去에는勿論이엇고 압흐로도그와가튼 陸上의超人이 出現하리라는것은 想像키어려운일이다

年	種目	分 秒
1921	六哩	29.41.4
〃	一萬米	30.40.2
1922	五千米	14.35.3
〃	二千米	5.26.3
〃	三千米	8.26.6
1923	一哩	4.10.4
〃	三哩	14.11.2
1924	四哩	19.15.6
〃	△五哩	24.06.2
〃	千五百米	3.52.6
〃	五千米	14.28.2
〃	△一萬米	30.06.2
1926	三千米	8.20.4
1928	△十哩	50.15.0
〃	△一時間	11哩1647碼
〃	△一萬五千	46.49.6
〃	△六哩	29.36.4
〃	△二萬米	64.38.4
1931	△二哩	8.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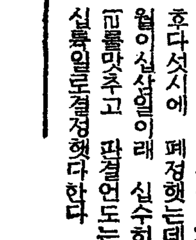
セブランス醫專病院
本校眼科科長 本院眼科科長 擔任 檢眼
京城驛前 電本四七四○





各種天幕 日覆 荷車 雨覆 防水布 加工品一式 及各種衣裳 室內裝飾一切 製作販賣
泉商會テント部
朝鮮京城府竹添町一丁目七九番地
電話光化門五一七番・振替京城一七九九二番

不老長生 回春秘藥
人生無上의希望은 이것이다



京城樓洞 松岩莊

保險金受取感謝狀
今般本人의亡夫張仲元이가貴社特種養老保險에加入하온지一個年만에不幸히死亡하엿사온바貴社에서는遲滯치안이하시고保險金一千五百圓을支拂하여주시옵기玆에紙上으로謝禮하나이다
金城驛前 尹仲三
日華生命保險株式會社長 殿

最高의社會的意義잇는大事業躍進
조흔家庭工業
第一 第二
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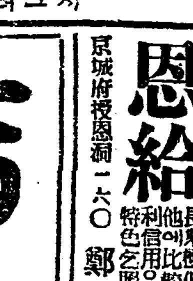
朝報案內
調査係社員採用
府內外에精通하고 信用及不動産鑑定에經驗이有한 志操堅固한 十才以上四十才까지의 希望者는 履歷書携帶本人來談하시오
京城府水標町二八二 共濟無盡會社

急告
本人實印을昭和十年六月廿九日에紛失하엿기玆에廣告함
平壤府山手町三三 金智洙 白

恩給
長期低利 他에比較無比
京城府授恩洞一六○ 鄭商會

痔
手術안코 オヒロ 치의 藥으로곳치라 는
全國各藥店에잇습 ￥0.30 ￥0.50

京城 金 金銀地金分析賣買 合資會社杉山商會
寶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話本局七四○番



巡查看守(講義錄)
巡查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合格保證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朝鮮警務學會

登錄商標 登錄商標
고무靴界元祖 大陸고무
總販賣部 京城鍾路(普成前) 電話光化門七六五番 振替口座京城七三二三番
總販賣部支店 京城南大門通四丁目(南大門市場越便) 電話本局七五四番 振替口座京城三七七五番
專務取締役 李圭一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京城中林洞一五五 電話本局三三八番 振替口座京城一二六一番

漁具
優良品 網絲絲各種 釣針釣絲 鳥捕網各種 定價表無代進呈
四分目 二尋 十圓
五分目 二尋 八圓
京城府黃金町四丁目 漁具製造卸商 海鮮商會 振替京城二○五七九

フットボール ミクロ ツトブ 製造專門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一八 勝雲堂 取次電光二七三番

毛生元藥 후미나인 全國藥店에有

남모르게苦痛하는 無毛 落毛 若禿의原因과 털을나게하는原理
田中醫學博士의成功
—說明書無代進呈—

리혼만하는날이면 봉빠지는남편

머리의삼분지일은부조료로 도망을하대도경찰이뒤쪼차

싸뻬―트지방에서는 혼자서 생활할수잇는젊은부인은 다르지만 유혜적으로보통할수업는 부인과 어린애가잇는부인에 대해서는남편이리혼한후에 리혼부조료를내이게되엿는데남편의 전수입에상분지일을내일의무가법률상 제정되여잇습니다 그런데 헤여진녀자에대한싸―비스는 어느나라남자도 실흔모양―이리혼수당을지불하지안키위해서 집을자조옴기는남자 도소록에의 신고를거짓으로하여지불액을되도록적게하려는자가 만타고합니다 그리하야로시아공화국만에도리혼수당을밧지못한 부인이삼십만인이나된다고합니다그런데종내 이 리혼수당체납자에게대해서는 재판소의경고나 심해야투개월정역에처해섯는데싸베―트정부는 이번여법주의로나아가게되여 최근신법률의 제정을보게되엿다합니다

어린애들에의하면 리혼수당체납자는 중한벌금에나투개월이상 이년이하의징역 또는강제로동에 처하게되엿습니다 그리고리혼부조료를지불하기싫은 일부러 아롭은조는자에대해서는 전처의요구에의해서 비밀경찰은그의행방을탐하하는데그비용도 그남자의수입에서공제한다고합니다 그러고저납상습자에게대해서는 재판소는녹정그가로동하고잇는공장에대하야 봉급중에서 수당액을공제하도록 되여잇다합니다

그리고 리혼수당납입자의리권(辭令)(이것이 싸베―트시민으로구나갓고잇다)에도 엄밀히수당지불의무가씌여잇스므로 어데를가든지이것을면치못한다고합니다 어떠한악한자를 이평등의나라에서도용서하고잇다는것은 자미스러운일입니다

家庭

옷차림은그사람의 취미교양을말한다

옷으로오해밧는요새부인네들 돈만히드린다고호사는안된다

문명이란 반드시 인류사회에 행복과 아름다움만을 끼처주느냐하면 그럿치도안습니다 가령『콜롬부스』라는 사람이『아메리카』를발견한것은 우리인류역사에잇서서

만혼공적을끼친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사람네의 도라보는길에 무더온 무서운병균은 오늘날세계에 퍼저잇는것입니다

이와매한가지로 오늘날의 극도로 발달된 긔계문명은 물론 우리네의 생활에 만흔 리익과 공효를 끼치면서도 또한그반면에 추하고 악한것을보혀주는것도 적지안흐니 인조견이나『보일』이생긴뒤로부터 우리네의전해오든 의상미(衣裳美)는 여지업시 깨여젓스며『와―브』하는법과『루―지』가드러온뒤에 우리네의 아담하든 용모(容貌)는 아주허러젓습니다

종로네거리에나서

보든지 전차에올너보시요 젊은녀자의 차림차림이 하인들 누가 온전한 제모양대로 가진이가 멧치나됩니까? 심지어 양가의처녀나 보통학교의 녀교원되시는분들까지 그의복이나화장에 전아한 맛이 라고는 하나도업고 심하게 말하면 서양의 매춘부나 조곰도 달음이 업는것을 얼마라도볼수가 잇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젊은분들에게대해서

외이써가든보선

을신고 밀기름을발너서 쪽을지라든지 긴치마를입으라는것은아닙니다 그러나 의복과 화장이라는 그체격과 그생활에빗처서 격에마저야할것인데 우리동양사람은 체격이나 생활이 서양사람과는 아주달음에도 불구하고 의복과 화장만그사람들을본바드려하며 그렐사 지식이나 견문이잇스면몰라도 겨우 이삼십전짜리활동사진에서 보고온지식으로 그뽄을바드려하니 얼마나가엽습니까? 양장이아니고는 조선옷에잇서서도 수색이나 은은한빗치면 너더할것인데

멧겨울입어도살

이와일볏한『보일』에다가 그젤삐장한세계와 판한문의기잇는것으로 치마 저삼가튼것을 예사로해입고 의긔양긔하게걸어다니면서 아주 류행의최첨단을것는멋에나가진드시날뛰는것은 아모리해도 야비하고 천한취미라고아니할수업습니다

그럼으로 옷을잘입는다는것은 되나 안되나 조흔비단에 빗갈과 문의가야단스러운것이아니고 삼베옷을입어도 입는사람의 체격과 생활과 취미에맛추어서 몸에맛도록깨끗하게입는것이 제일 호사한것입니다 다시말하면 길을것거나

여러사람이모힌

자리에서 옷이유달니 남의눈에 띠이는사람은 첫재옷해입을줄을 모르는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그사람의옷이 그사람의체격이나 모습에어울니지안는때문에 옷만이 뛰여나게보이는것입니다 화장도 전체의얼굴에 어울여야하는것으로서 동양사람은 낫히윤곽이나 선이갓은데루―지를 피스갓치 칠한다든지 눈섭을새캄앗케그리는것은 대체로 어울니지안는만큼 보기조흐라고한화장이 도리혀 보는사람에게 불쾌한감정을 주는것입니다 그럼으로 화장이나 의복은 무엇보담도 자긔의 용모, 체질, 성격가흔것을잘짐작해서 조화되지안토록하면 아무 소용도업습니다

기미가안생기고 주름살펴지는약

얼굴의 살결이 퍽민감하게되열분피부를 가진분은 주름살이나 기미가생기기 쉬웁니다 그러분으로 위해서 아―조간단하고효과적인 치료방법을 말슴드리겟습니다

×

첫재로 다음것을 준비해주십시오

즈린오톤밀 두숫가락
그리세린 세숫가락
로―즈수(水) 두숫가락

이것이 준비되거든 몬저살혀거서 풀그루 얼굴에바르십시오그리고는『가―제』나 엷은면주로 만든 마스크를그우에 씌워가지고 꼭눌러두십시오

얼마를 두섯다가그게 말르다음에는 미지근한 물로 씻어시처내십시오

그리면 아―조 살결이 보드러워지고 주름살이나 기미가업서집니다

한번시험해보십시오

서양사람의미신

십삼의수와짜금요일

—부억에관한미신—

어느나라인들 미신업는나라가잇겟습니까마는 과학문명이 극도로발달되엿다는서양각국에서도 미신은 잇서 『예수』가 열세사람의 제자를데리고 최후의만찬을가터하고 금요일에 못박혀죽엇다해서 열셋이라는 수짜와 금요일을실혀하는것은 누구나 다아는바이지마는 그중에도 부억에서 말성되는 미신의일부를말하면 알에와갓답니다

◇그릇을씻슬때에 무엇을입허버리면 멀지안허 혼인말이잇게된답니다

◇스토―브우에언는 차끄리는주전자의입을 모르고 뒤으로돌려노흐면 손님이 오신답니다

◇소금을쏘드면 운수가낫부다고해서 그때는 소금을 조곰집어서 왼편의개념으로뿌려서 살홍업시한답니다

◇못을쏙에서 물통이뒤면 그근처안젓든사람이 멀지안허서 큰회재를한답니다

◇빵눈을마들면서 코스노래를부르면 그『빵』은다먹도록 눈물날일이생긴답니다

◇『수―프』가 불에서내려노흔뒤까지끄르면 그『수―프』만든사람이 오래산답니다

◇두번보기실흔손님이왓다갓슬때는 뒤ㅅ마루에 소금을뿌리고 그손의간쪽으로 비질을한답니다

◇『나이프』가떠러지면 남자손님이오고 『포―크』가떠러지면 녀자손님이오신답니다

◇부억에서 고양이가 몸잇눈쪽으로 등을두면 멀지안허 비가온답니다

◇세수나 세탁을하다가 비누가떠러지면 운수가낫부답니다 땅에떠러지면 더낫부답니다

◇『나이프』를 엇시자로노흐면 언쟁하는일이생긴답니다

船來話題

녀신의눈에서 눈물이베오듯

『폴로―렌스』시(市)에 가까운 이태리은마을에 이즈음『긔적』(奇蹟)이 출현하야 대평판이라한다 이마을에는 예로부터적은례배당이 잇는데 거긔는이지방을 지히는 신(神)으로『산타베르더이나』라는 여신(女神)의 대리석상이 잇다한다

그런데 그어느날 그마을 사람들이 이압흘 지나가자 대리석상의 눈이 마치 우는것가티 눈물에 저저 잇는것을 발견하여 이마을 사상들은그것을 정성스럽게 씨서주엇다한다 하리한후 그다음날아츰 또그압흘 다른마을사람이 지나가게 되엿는데 그여신의눈에서 눈물이 흐르듯 물방울이 빵으로흘러나리어 잇는것을 보게되엿다한다

이런케되여 마을사람들은 정성을드려 눈물을씻처 드리엿는데 여전히 물긔운이 살아지지안헛다고한다

그리하야 『여신은 울고 잇다』는말이 가까운마을에 모두전파되게 되엿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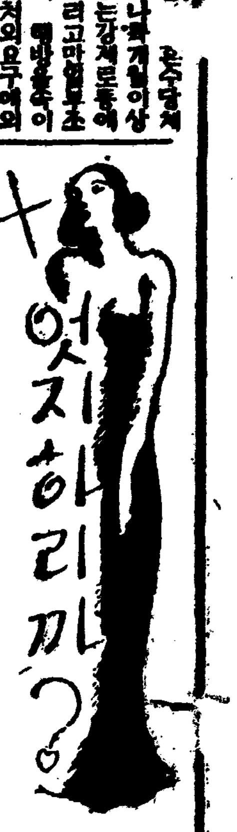
원래 긔적(奇蹟)을 조아하는것은 소박하고 신앙심만흔사람들의 상투적인 심리이지만 이와가튼긔적은 그근처의남녀로소의 회제가되여 이곳으로 몰려오게 되엿다한다

그리하야울고잇는처녀 근방의 대평판이되여 당국도 이것이 어쩐일인지 못하그진상을 조사중이라한다

曆

七月三日(水) 舊六月癸未(小)初三日 庚辰·金·室·開

▲小暑 八日(舊六月初八日)
▲初伏 十三日(舊六月十三日)
▲中伏 廿三日(舊六月廿三日)
▲大暑 廿四日(舊六月廿四日)



엇지하리까?

조혼을한것으로 이런일이생겻소

問 저는 금번로조혼한남과를 졸업한 이십일세의청년이올시다 그러한데 일직이가정부모가 완고하야 십오세에 부모의명령에의하야 마음에맛지안는 결혼을하게되엿습니다 그러하야 비록결혼은 햇슬망정 한번도안해와말해본적이업섯습니다 이러한가운데 제가 중학을졸업하든해 모녀교이년생이든A라는 녀자를 알게되엿습니다 그것이 인연이되여 자조 만나는사히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되여 졸업후에는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엿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변되든해봄! 모처에서 열린 빽스겟대회에 본교 대표 선수로 출전하야 당당히우승의게관을 엇게되엿는데 이것이 인연으로 모녀학교 이년생B라는녀자와 도알게되엿습니다 그것은 제가 능동적으로 한것이 아니오 그녀자에게서 간곡한 사랑의편지를 밧고감동이되여 그와도 친하게되엿습니다

그러다가 금번도 제가 학교를 졸업한뒤 집에 도라와잇는데 A로부터는 졸업햇스니 약속대로 결혼을 하자합니다 그리고B로 부터는 래년 졸업한뒤 결혼을하여가저고 동경으로 유학을 가자합니다

A라는녀자는 재산가의 령이니만지 내학비를 대준다고까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A나B나모조리 저와 육체적관계가 잇습니다 집에는 법률상안해가잇고 A와B두녀자는 결혼을하재고 흘리대니 이일을 어떠케면 조켓습니까? ([illegible])

처음부터끗까지 남분일만하엿소

答 당신은 하나로부터 아조까지 제 생각만하엿습니다 아묘도 나희어린 소년의몸으로준진한 두녀성의 정조를 유린하고 이유린된 처녀의 애달버하는것을보고 승리의 쾌감을 늣기면서 이놈을 잡을가 저놈을 잡을가?하고 생각하고 잇다는것은 생미저행동으로서 이사회에서 매장해버리도 조흔만한 악한입니다 원래 조혼을하여 마음에 업는녀자를 안해로 마저쓰면 경험이잇스면 그안해를 처치하고 다른사람과 정식으로 결혼을 한다거나 또그러치못하야 그안해를 청산하기전에면인이 생겻다면 그애인을 위해서라도 보기실흔 안해를처처한다면 파도긔의 남성으로 다소 용서할점도 업는것은안이나 안해를두고 애인을갓고도다른녀자를 롱락한다는것은 아모리 선의를 가지고 해서해도 당신은 악마요 색마라고밧게는 말할수업습니다 그럼으로 당신을 그두녀자에게 자긔의 잘못을 사과하고 참된 근신의 태도로 무슨사업을 못드시오 (記者)

記者一言 조혼한남자로 연인이생겻스니 어찌 하느냐는 질이가 만히 들어오는데 이문제는 너무중대한것이고 또원체 똑가튼것이 만흐므로 이미대답한일도잇스므로 금후는 이런종류의 해답은 안키로 합니다

유―모어小說 望夫石【三】

金熊超 作·畫

復習 (八)

재호는 소심한인간이라 아니할말로 걱사한이

―저번에 거짓을 호랑라다가 말을 안드린니까 뒤좋수를봣구나!

어떠케해서할거도갓고

―운속 못나서야 되ㅅ사를 먹나!

하고 비우를닐도갓치요 비애마하서 못가는줄을모르고 게집하나볼하나 꿋지어왓스니절간에와서 하로이틀자고가는것도 예사요 여러사람 눈아래 여놋는주려만아니라면가진짓을하드래도 간섭할까닭이업스니뭐좋수가 뭔가웃니뇌고감때사납게 생겨 남보기에 그러케 흉헌흠령하게 안생긴재호로서는 패남아(?)의면목이 나서지안흘것이다

―기어히 비극으로 종막을 짓는구나!

세상에 연애로인연한비극이만타 첫재의 안해를 하야 수면제먹은 ... 랏든지 이번에는 사람이 내다봣다

『서낭주게되만 주십시요』

『네 네 그러서요』

뒤기용변에 너머간 그사람은 서낭의간을채로 기부하고다시 드러갓다

재호는 생각도안나는 담배를 한개피어물고, 뒷짐을짐고, 락수물이 졸졸수채텀떠러지는 축대가를 왓다갓다햇다

―찻피고뭐고 다지버치우고 발하나를비어내려하든지 딴두방에드러가 자든지해버리자

그러나실분만 며 섬사속고할 여유를가지고 도왓다갓다햇다

오르고 나리며
잔기침소리에
엇저구 저저구……

속가(俗歌)에잇는 정경그대로 재호는 감기를머은기침이 간혹가다낫다 구두소리는 뚜벅뚜벅 ―재호가 울쩍한 심회와 비찻한정조에못니겨 회파람을것은 드뢰꼬의세리나―데결코 유

스주엄분을 맛회에 먹고 남은 여생을 꿈으로 때워버리는 것도비극이요 엄부모시하에 몰래 매진사랑을 추스릴수업서서 맹광이처럼 서로 분등켜안고 죽의 목숨을 대신하는것도 비극이요 활동사진 푸로마이드를 헛바다으로 핥가

―거여불식은 화중지병이여―

하고 한강교란간우에서 떠이병하는 장견도 비극이지만 재호는 상대자가 물려주는 외쫘사랑에 터구나 잘ㅅ자리를뺏기고 밖게서 떨고섯는것도 비극도맥랑한비극이라 할수잇다

―어룰어룰 하로ㅅ밤만지나면 그만이다 아모테나 쓰러저다가 이러나지!

하고 재호는 누울자리를 돌색해보앗다―

방속덩한 토막만보다 별로 나은팔짜는 못되지만대웅전처마끄테 쪼그리고안자 토끼잠을 잘수는자마업섯다 옷에흙이뭇고, 거북할것은별문제로하고라도 절시간사람의눈에 띠우는날이면

―그런꼬락선이가잇나!

재호는 입맛을 쩍쩍다섯다

그리고나서 사람이잇나업나하고 판두방문을 가만히 여럿다 ―잇스면룰리고, 업스면 한구석에누어잘판이엇다

『누구요?』

캄캄한속에서 사람의소리가 낫다 재호는 바늘에찔린드시 움즉하고나서 문을가만히 다덧다

『누구요?』

불시상을도적질하라는놈으로우나에게 드르라는것은아니엇다

유나의방 창문에는 불빗이아직도 환하게 밝어잇섯다 재호에게는 지척의거리나 월세계와가티 멀고 또그리웟다

아 때다

『선생님!』

유나의목소리엇다 재호는 자기귀를 의심하고 잠시 귀를기우렷다

『선생님』

분명히 유나의목소리엿다

『불르섯습니까?』

『네』

『왜그러십니까!』

재호는 일른창엽으로 가겨도 안되여서 섯채로에 그대로 머물러잇섯다

『잠깐만 드러오서요』

『왜요?』

『글세 잠깐만 드러오서요』

―무슨까닭으로 드러오라나!

재호는 더무칭하기도 햇지만 영문을몰라 어리둥절햇다

안드러가는것도 쑥스럽고, 몸스숙 뛰어드러가는것도 경망스러운것가태서 재호는 미다시압헤이르러서 기침소리만 한번내고 우두커니 서잇섯다

『어서 드러오서요』

『드러갈까요』

재호는 비로소 방으로드러갓다

유나는 이부자리도 깔지안코 책상에 팔을괴이고안자잇섯다

『무슨일이신니까』

잠시동안말이업서서 재호가먼저입을여럿다

二日(火曜)

◇午後六時三○分兒童時間 발가버슨임금님(上)一景 天道教京城少年部
◇同六時五五分 課外講座 歷史以前의이야기(一) 曾成高普 徐元出
◇同八時 趣味講話 朝鮮民謠의現實性(二) 明倫學院講師 金台俊
◇同八時三○分 歌詞 一、길軍樂 二、白鷗詞 金錦紅 李月色 大笒 金永根
◇同九時 洋樂 在東京朝鮮人音樂家協會
◇同九時四五分 講書 一、所陽撥記 二、阿房宮賦 金敬圭

遞信七月一日 未定의分은다음과갓치決定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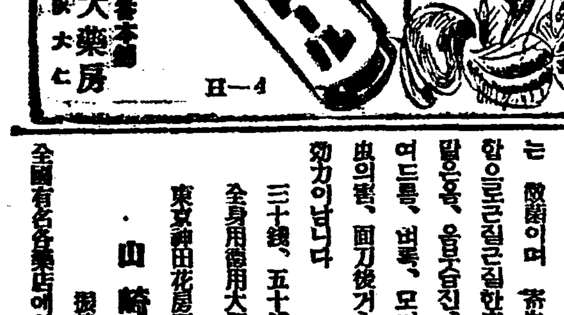
◇午後二時○分 家庭時間 家庭娛樂(一) 李應淑
◇六時五五分 產業뉴―스에繼續하야 經濟解說 景氣의前途 朝鮮日報經濟部長 申泰翊
◇八時○分 趣味講話 朝鮮民謠의現實性(一) 明倫學院講師 金台俊

三日(水曜)

◇午後零時五分 報念外 一、報念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興打鈴 五、개고리打鈴 大笒 朴鍾基 趙鎭榮
◇同二時 主婦의時間 家庭洗濯法(一) 宋玉璇
◇同六時三○分하―모니카四重奏 第一高普하―모니카四重奏團 第一하―모니카·金台植 옥타―브·曹鵬煥 바리톤·曹貞煥 옥타―브·바쓰·申孝彬
◇同六時五五分 課外講座 歷史以前의이야기(二) 曾成高普 徐元出
◇同八時 講演 言語教育과標準發音 延專教授 鄭寅燮
◇同八時三○分 老人曲外 一、愁心曲 二、갈가보다 三、老人曲 四、방아타령 五、신농타령 伽倻琴 金七星 高一心 大笒 金永根 細笛 高載德
◇同九時 遊山歌外 一、遊山歌 二、제비가 三、執杖歌 四、양산도 五、노래가락 張彩瓊 金桂順
◇同九時三○分 첼로獨奏 一、인트라―다…데스톨作曲 二、無言歌…멘델손作曲 三、세레나―데G長調…파울호스크作曲 四、알레그로아파쇼나타…상상作曲 五、七變奏曲…베―토―벤作曲 本管 伸光 伴奏 後原 敏子

四日(木曜)

◇自午前六時五六分至同一時三○分 獨立祭日米國際放送
◇同午後○時五分 하와이안기타 一、音樂 一、하와이안·훌라·걸 二、라·팔로마 三、우클렐레·베이비 四、호놀룰루·룰루·윌쓰 五、꿈자이의등불 六、로열·하와이안·마―치 七、뉴―잉란드·무―ㄴ 하와이·안·뮤직·클럽 指揮 張明善
◇同二時 主婦의時間 家庭洗濯法(二) 宋玉璇
◇同六時三○分 童話 金復鎭
◇同六時五五分 課外講座 歷史以前의이야기(三) 曾成高普 徐元出
◇同時 防疫講演 防疫週間實施에對하야 京城府社會課長 穗重植
◇同八時三○分 (東) 和洋合奏 오―케스트라 指揮 小畑領浪
◇同八時五○分 레코―드音樂
◇同九時 歌曲 一、羽調初數大葉 二、羽調三數大葉 三、言樂 四、編樂 五、編 李炳俊 玄琴 金雨塘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三○分 連續古談(一) [illegible]



蠅·蚤·蚊·南京虫等害虫의殺虫保証
專賣特許
キンカトール 液 긴가도―루
家庭用芳香殺虫液
安住かとり線香本舗 發賣 安住大藥房 大阪大七
H―4

皮膚チヤージ 차―지
근질근질한皮膚病·무좀·말은·옴·부습진·땀띠等에한번試用하시요
滲透療法의 眞髓!!
皮膚에더럽지안코, 알흐지안흐며 皮膚의深部에滲透하야 內部에숨어잇는 黴菌이며 寄生虫에强히作用함으로근질근질한皮膚病, 무좀, 말은옴, 음부습진, 땀띠, 버짐, 여드름, 버룩, 모기, 빈대等의毒虫의害, 面刀後거스름等에實로効力이납니다
三十錢、五十錢、一圓
全身用徳用大瓶五圓
東京神田花房町 山崎帝國堂
振替東京一四六七
全國有名各藥店에잇合

景品付 ヤマサ醬油 야마사
品質日本一
朝鮮全道(但雄基港附近을除함)
桶에 優良コナ石鹸 大袋
罐에 優良コナ石鹸 中袋
壜에 上等洗濯石鹸

七月一日부터特別大公開 地獄特急 ... 그의딸 ... (優美館)
七月四日부터 大都映畫社特作現代劇 大江秀夫氏陣頭作品 俺は日本人だ 阜秀夫氏 琴路美津子 主演 黃金町 優美館

當る二日より豪華三日間 特別名作映畫週間 附下席 十錢均一
不二映畫社新興キネマ合同製作 原作 尾崎紅葉 監督 鈴木重吉 金色夜叉 高田稔、鈴木傳明、佐久間妙子、英百合子、渡邊篤、主演
新興キネマ超特級時代劇 原作 阿古三之助 監督 廣瀨五郎 撮影 三木茂 戀と十手と巾着切 河津清三郎、星玲子主演
パラマウント特作日本版 監督ノーマン・マクラウド氏 ママはパパが好き チャーリイ・ラグルス氏 メリイ・ボーランド嬢 主演
永樂町 電本三五○ 中央館

七月二日부터特別大公開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二回합니다
◇파라마운트社特作日本版 裁判劇 暴風의處女 全八卷 監督…스티븐로바스氏
◇新興키네마社超特作品 碁盤縞の女 全七卷 監督…印南弘氏 主演…由利健次氏
◇비나―토로社特作品 北極의猛者 全六卷 主演…알―하도―드氏
南浦坊花洞 電話 一三二 櫻花劇場

七月二日부터 每日三回 今週에限하야 階上 五十錢 階下 三十錢
아밤이 딸로
자장가
[illegible]

黑風 (66)

韓龍雲 作
金 畫

강도 (24)

왕한은 송욱에게 은혜를입히기까지는 성공을 하얏스나 자기가 송욱의힘을 입어서 뜻일을 펼것을 생각하야 보앗다 송욱을 차저가서 자기의 강도질한것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야볼까 하얏스나 그러하면 송욱이가 의심할것가텃다 송욱이가 사변을 당한것도 뜻밧게일이오 자기가 송욱을 구원한것도 공교한일이라고 볼수가 잇는대 그러한 교대에 자기가 그러한요구를 한다면 송욱이가 의심을 하지 아니할까 그러면 정식으로 경찰에 자수를 한뒤에 송욱의힘을 빌려서 무사히 만드러 볼까 여러가지로 생각하는 왕한은 하여간 다시 한번 송욱을 만나본뒤에 기회를 보아서 형편대로 결정하기로 하얏다

왕한은 이틀이 지난뒤에 송욱을 차저갓다 마침 송욱이는 여데를 갓스므로 청직이가 왕한을 인도하야 별실에서 기다리게 하얏다

송욱이가 사변을 당한뒤로 그때까지 위문하러 오는사람이 끈어지 아니하야 사랑에는 여러사람의 위문객이 잇섯다

왕한이가 여러사람이잇는 사랑을 지나서 별실로 드러갈때에 사랑에 잇는 여러사람중에서 왕한을 특별히 주목하야 보는 사람이 잇섯스나 왕한은 무심히 별실로 드러갓다 그 별실에는 별로 잇는것이 업고 경찰전에서 발행하는 경찰보(警察報)라는 잡지한권이 책상우에 노여잇섯다 왕한은 거저안젓기가 심심하야서 경찰보를 떠드러보앗다 왕한은 그것을보다가 놀내엿다 그것은 자긔의범인된 통자강도사건이 그중에 게재된것이엿다 그 긔사는 그 사건의 사실만 게재되고 다른말은 업섯스나 자기의 염려하는 일이니만치 자연히 놀나진것이엇다 왕한은 그것을보고 새삼스럽게 자긔의 염려가 새로워젓다

문밧게서 인거척이 나더니 웬사람이 문을 봇쳐열고 들어선다 왕한은 공연히 놀내어서 가슴이 두근거렷다 들어온 사람은 왕한을 한참 보다가 포케트에서 수첩을 끄내고 수첩속에서 무슨사진을 내어본뒤에 다시 왕한을 노려보더니

「당신이 누구요」

하고 그사람이 뭇는다

「나는 허철이오」

「당신이 서왕한이 아니오?」

「아니오 나는 성은 허가고 이름은 외자이름 철이오」

「저리좀 갑시다」

「어데로 가잔말이오」

「어데로든지 무러볼말이 잇스니 가자는대로 갑시다」

「나는 여기 주인에게 볼일이 잇서 왓스니까 갈수가업소」

그사람이 돌연히 달녀드러 왕한의 따귀를 때리더니 포케트에서 포승을 끄내어 왕한을 결박하랴한다 왕한은 한손으로 그자의 멱살을 잡어서 태질을치고 발길로 두어번 밟버주엇다 그사람은 넘어진채로 호각을 부럿다

호각소리가 끈치기전에 수십명의 정사복 순사가 달녀들며 왕한을 결박하라한다

왕한은 그사람들이 경관인것을 알고는 자기의일이 탄로되야서 자기를 잡으라는 것임을 알게되얏다 그러하야 왕한은 넉넉히 결박을 밧지아니하고 도망이라도 할수가잇지마는 그러하는것이 도로혀 자기의일을 해결하는데에 방해가 되리라고 생각하야서 조용히 결박을 밧엇다

왕한은 결박을 밧을때에 자기의 사건이 탄로 되엿다 이라고는 생각하얏스나 엇더한 사건인지를 몰낫다 강도사건이지 혹은 송욱에게 대한일인지를 의심하얏스나 다시 생각하니 송욱에게 대한일은 발각될수가업섯다 송욱을 결박하든 세사람이 잡히지도 아니하얏고 잡혓다 할지라도 그사람들도 자기의 내용을 알지못하니 발각될수가 업고 또는 먼저 드러왓든 사람이 사진을 내어서 자기의 얼골을 대조하는것으로 미루어서 송욱에게대한일이 아닌것을 알게되얏스므로 송욱의힘을 비려서 해결하랴고하든 강도사건이 자기의구차한 계획을기다리지아코 그러케 발각되는것이 차라리 무방하다고 생각하얏다

想華 언덕우에선草家 (下)

高 渭 民

적어도 그동안은 배곱흔것도 무엇도 다 니저버리겟지。黃土를 부서서 陶器의破片에 담어가지고 아우다려「이것은 살밥이다。엇저녁에 祭祀지낫단다」하드라도 그瞬間의그들에게 살밥의意表가 現實的으로잇지는안흘것이다。그들은 完全히『童話의世界』로沒入할것이다。貧富의觀念—이라거보담、그 具體的發現이 그들을괴롭히는觀念은 全然히 업슬것이다 그住宅의 模型이 아모리 적고華麗하지못할지라도、그속에서만은 그들의 個性이 最大限까지活動할것이다。

나는 언덕우에서 내려왓다。그들의 幸福과 將來를 빌면서

그언덕을 올라갈때 나는 그 草家의過度의 貧弱으로 因하야 先見的 으로 그 主人들을 可憐히 여엿다。그러나 이제 와 나는 그 草家를 생각할때 잇서서 明瞭했다。——그들은『明日』을 가젓기때문에!

그러나、하로에『三十錢의賃金밧게 못버는 그들、특히야남의논을 한두마지기밧게 못붓치는(이것도限界이다。小作이라도) 하는사람의 정혼 어보담은 大概 나흐니까)이들의「明日」은 明日이래야 얼마나 보담나흔 明日이랴! 子女는 初等學校에도 못갈레니 얼마나 將來性이 잇스랴! 正規의 就學過程이 업고는 제어모리 先天的 素質이 조키로서니 山中의一介樵夫로서 늙어죽을수밧게업는 世上이니! 貧富의 差는 잇슬지언정 어머니뱃속에서 나올때부터 一生의 運命을 결머지고나오는것이 이 世上의 定則의 하나다。그運命에서 멀펀헤여 나지못하는것은 모다 이草家의 家族과 마찬가지다。

그러나그럼으로。하고 나는 敢히 파라독씨칼한論調를 쓴다。) 사람들은「明日」을 바라보고 希望을 가지고살어야한다고

(여草家의家族과가치!)

東京에서 『고향집』發刊

東京에가서 工夫하고계신 金英一氏는 그곳유학하는學生을 다려서 少年少女雜誌인『고향집』이라는것을發刊하게되엿다는데 主로 異域에가잇는 우리 어린동무들을위해서 재미잇고 유익한 잡지를내겟다며 여러에잇는 어린동무들도 글가운것을 만히써 보내달납니다。住所는 東京市本鄕區金助町二十八番地 故鄕社이랍니다。

집시新聞發刊

【벨그라—드發聯合郵信】벨그라—드에서 요즈음世界最初의집시語의新聞『로마—노·길』紙가 發刊되엿다。유—고—슬라뷔아國內에는 애초부터루—마니아、헝거리아等집시族이 만흔 싸베드聯邦、그리고는바다를건너서 어메리카나北아프리카로부터도 熱히購讀의申請이만타한다 집시語나其他의言語로激勵나批評의片紙가 날려온다고한다 로마—노紙發行所에서는 여기에힘을어더 로마—노紙의英獨佛語版을내여 大大的으로집시文化와綜合의宣傳에努力하리라한다

【원—發聯合郵信】원—에서요즈음下水工事中 뜻밧게地下人間의地帶에 十一、二世紀頃의地下都市를發見、원의아들學者들을놀라게하엿다。

地下都市는 카타콤모양으로蜿蜒한廊下를通하야 數多한人骨이發見되며 다만墓地로 使用되엿슬뿐만아니라、追擊者를避하여 ... 生活하엿다고 ... 여러가지의 形跡이發見되엿다。

中央에는 數個의 ... 이잇고 ... 한푸러스코가조금도 損傷되지안코남어잇엇다。

中元의贈答은

「互相의幸福을祝願하는」

마음의表現!

그럼으로

健康을주는

淸凉한味覺인

가루피스가

—가장適當!

두瓶보내면

사이다瓶

두打分이

넉넉이된다

가루피스贈呈은힘의膳物

執務家에는 胃腸을整齊頭腦를明快케하는힘을

運動家에는 疲勞回復과活力膨脹케하는힘을

胎 兒에는 骨骼을長大케하는힘을

姙 婦에는 입덧몰으고安産케하는힘을

病 者에는 營養을돕고恢復을速하게하는힘을

販賣所 百貨店·食料品店·酒店·…業店　顧問 理學博士 三宅驥一氏

發賣元 京城 辻本商店　製造元 카루피스製造株式會社

咸南甲山地方에 無名의怪疫猖獗

徵候는皮膚腐爛、關節軟化等 벌서罹患者數十名

【咸興】함남도의생과에도달한보고에의하면 함남갑산군운흥면(甲山郡雲興面)에는 최근원인불명의 다앗수업는괴병이 극히창궐하여 벌서리환자이십여명의 다수에달한다는데 그증후를보면피부가부란(腐爛)되고관절(關節)이연화된다는데 중후로말미암어보아서 혹시 「레푸라」균의전염이나 아닐는지 모르나동과에서는 직접출장하여조사할계획이라고한다

救濟米를配付 楊口에만五十石

【楊口】작년한수재로 생사기로에서헤매든 강원도궁민들은 저반수재미지출과 조속배분등만반으로 생명보지책을 강구하여오든중 요사이 맥령(麥嶺)기에잇서 극궁에서 울고잇는 이재민을 강원도당국에서는 수만원의구제금을지출한바 양구군에만도 소미오십석 (대가일천이백원)을 지출하엿슴으로 일반 이재민은 극궁에서 겨오생명을이어 연명을하는중이라는데 양구에서각면에 배당한 금액은다음과갓다고한다。

楊口面 二百十六圓
北面 百十五圓二十錢
方山面 百二十九圓六十錢
水入面 三百四十五圓六十錢
亥安面 五圓七十六錢
東面 二百十六圓
南面 百二十三圓八十四錢
計 一千百五十二圓

方峴閔致源女史 又復千圓을喜捨 公會堂建築費로

【方峴】평북귀성군방현면하단동(龜城郡方峴面下丹洞)민치원(閔致源)녀사는 금번방현공회당건축기금으로 천원을희사하야 칭송이자자하든바 또다시공회당을위하야 천원을더제공하얏다고하는데 압흐로방현에이와가튼유의의인사가 만히나오기를일반사회는기대하고잇다한다

碑石里民의 水溝改修陳情

【安岳】황해도안악읍내 비석리(安岳邑內碑石里)일대에는 지난번폭우에 침수가옥이 삼사십호나되엿스며 그에따라서 손해도불소하얏다한다 이곳은하수구가불충분하여 번번히 침수가옥이늘어감으로 지난일일에 리민의대표오륙명이 군당국에 진정하여 즉시로군수가 현장에출장조사한결과 금년도에는 경비문제로 착수할수업거니와 명년도에는 다른토목사업을 못하고라도 긔필코 실시하여주리라고하엿는데 일반은대단히 깁븜을마지안엇스나 금년도의압호로의 문제가대단히 리민의가슴을조리고잇다고한다

採石工事中에 六十老人慘死

【安岳】황해도안악읍내 판칠리(安岳邑內板七里)이백이십이번지 백순호(白淳鎬)(六五)로인은 지난 이십삼일부터 안악읍에서 십오리가량되는 구장동(區長洞)이란 동리뒤산에서 채석을하고잇든바 지난삼십일 오전십시경에 큰바위에치어즉사하엿다한다

院上住民의美擧

【利原】함남리원군 서면원상리(利原郡西面院上里)에는 금춘간이학교가 창설되엿는데 원상리주민들은 공공을위하야 당지청년당과 합심하야 로력사백일을제공하여 천여평의 훌늉한운동장을 수축하고 다시교통이불편함을느긴 청년당에서는 지난이십팔일에 도로부력(道路賦力)과 교량수축에 렬열히로동하고잇슴으로 보는사람마다 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鑛山詐欺者 陜川署에被檢

【陜川】경남 거창군거창면중동(居昌郡居昌面中洞)에사는 강재일(姜在一)은 십여년전부터 광산브로ー커에종사하든바 작년이월경 거창군남하면대야리 (居昌郡南下面大也里)에서 금광을발견하엿다하야 경남밀양군하남면 수산리(密陽郡下南面守山里)부호 장진석(蔣晋石)을속여서 업는금광을잇다고하야 전긔영리광산에다가 일만이천여원을드려서 발동긔등 최선의설비를하여노코、채굴한동광을찟는방아에 남모르게 금가루를사다가너허노코 발견비수백원을바든것등이 이제발로되여 협천경찰의손에체포되여 엄중취조를밧는중이라한다

宜川中央禮拜堂 定礎五週年記念

【宜川】선천읍내중앙례배당은오는 사일이 정초(定礎)한지 오주년을마지하는날임으로 이날을축하하는의미에서 삼、사、오삼일간 매일밤아레와가티 긔념강연회를 개최하는동시 최일밤에는 긔념식을거행한다는데 음악과기타자미잇는순서가 만타고한다

三日 張利郁校長 四日 金禮守牧師 五日 金錫昌牧師

基督敎朝鮮監理會 第五回女宣敎大會 公私唱廢止奬勵等決議

【元山】긔독교조선감리회제오회녀선교대회는 긔보와가티 지난이십륙일부터 삼일간 원산중앙례빠당내에서 이백여대표의 참석하에 개최되여 련일대성황을 일우웟는데 대회제삼일인 이십팔일에는 여러가지사항을 토의하다가 잠간회의를 중지하고대회총무인 거포허(巨布許)목사가 조선에와서 선교사업에 종사한지 이십칠년에 금년또다시안식년이되여 본국인미국으로 귀국하게되므로 동거포허목사에 대한 송별식을 거행키로되여동지에게 긔념품진정과 송별사등이 잇섯다 이어서 사무처리에들어가서 명년도사업에대한 감부전문위원의 보고채택이잇섯는바그중 사회사업의원의 『물산급색의장려』『각신자가정에서는 연초와주류를판매치말것』『절비자의 우환질고를 방문하며 또한구제할것』『녀자의조혼면과 남용선물법의폐지』『녀자의문맹을퇴치하고무산아동을위해서 힘쓸것』『미신타파와 공사창폐지를장려할것』『此外頂으略함』등의 연구보고를채택하얏는데 이상항목은 일반사회와 가장밀접한 관계가잇느니만큼 금후그들의 실행여하를일반은 매우주시하게되엿다 그리고 우승지방으로 장년선교회에 원산(元山)청년선교회로 평양정의녀자 고등보통학교(平壤正義女高普校)소년선교회로 원산(元山)등각교회대표에게 우승배수여가잇섯고 래대회 장소와그시일 작정이잇슨후 신임역원개선을 다음과가티한다음 동일오후 칠시경 무사폐회하얏다고한다

◇來大會場所及時日

場所 開城

時日 明年六月下旬

新任役員ー會長洪愛施德 副會長朴賢淑 書記金賢淑 同朴永晃 會計崔活蘭 總務崔利喜 (各地方總務氏名略)

元山近海에 稀有의鯖凶漁

【元山】매년이만때이면어항원산(漁港元山)이 고등어상획으로동성하야 부두의 자유로동자가 일시나마 생업을엇고 一일반어상과밋어업자의 주머니가불욱해질시기이엇는데 지금원산해안은 고등어(鯖)의흉어(凶漁)로한산하기곳이업슬뿐안이라 어항으로서의존재까지 의심케한다고한다 이러케 고등어어기도 불과수일을남기고 고등어갑은 작고등귀되여 작년동긔에비하면 배에달하는현상으로 한접(一接)가격이 작년사오십원하든것이 금년에는 백일이십원대에까지 비약적등귀를하야 일반소비대중은고통을하고잇다고한다

年復年激增하는 咸南道消肥金肥量

今年度消費가五十二萬圓으로 比前年四割六分增

【咸興】함남도에서 금년춘긔에 매출된 비료저리자금 (肥料低利資金)은 오십이만칠천원에 달하는데 이를전년동긔에 비교하면 사할륙분즉 이십삼만팔천원의 대격중을 뵈우는데최근도내의 농가에서 자급비료보담은 금비의사용이 급격히증가하고잇는현상은 농가경제로보아극히 주목된다고한다

麥粉窃取犯就縛

【元山】지난삼십일오후두시반경 원산상리이동에잇는 덕성상회(德成商會)에어떤노동자풍의 청년한명이와서 맥분(麥粉)한포대를훔처 고저하는것을 맛춤순회중의원산서원이 발견하고 그는도주하므로 이에추격하야 체포코저하얏스나 그자는 완강히대항하야 일대격투가 이러낫는중 마침이곳을지나든 순사가발견하고 조력하야 교하동(橋下洞)입구에서 체포하얏는바 이범인은덕원군부내면삼래리(德源郡府內面三合里) 김봉원(金鳳元)(二七)이라한다

西城公立普校― 寄附問題의軋轢 面當局과儒林間에

【泰川】평북태천군 서성면송귀동(西城面松貴洞)에 김락구(金落九)란선생으로동사하는태흥사(泰興祠)라는사당이잇고 그엽헤본동내김씨문중과 유림의손으로된김선생추모하야시사용하는 재실이요 동민집회실이며 개량서당이되여잇는일동사간의 건물이잇는바 금번태천군일면일교계획완성으로인한 본서성면에공보교설치코 긔성회가창립되여 창립비조성으로 각동에긔부금을모집중인바 학교설립으로인한서당의 불필요로각서당재산이며건물까지 이보교설립긔본금에전부 편입키로되엿는데 서성면당국은 이송귀동태흥사의공재실로 긔부를바더 편입하엿다 이에 이태흥사에 속하는 유림일동은 문하일동의손으로된 이공재실을 업세버리는것이 부당타하여 이의반환을 당군수에게 진정한일이잇섯는데 그진정서를 진정인이면장의 권유로 다시취소하게되자 일부유림측에서 다시서성면장에대한 문구를 라렬한진정서를군、도급각신문사에 발송하게되엿다는바 일반은 그사건의귀결을 주목한다고한다

印紙稅脫稅 四百件을突破

【馬山】마산세무서(馬山稅務署)에서는 인지세탈세조사 (印紙稅脫稅調査)를 시행하엿든바 발견건수가 이백십사건에 벌과금(罰科金)이 일천삼백칠십칠원이 나되다고한다

金鑛主韓某를 檢事突然拘引

【咸興】영흥범포(永興泛浦)금광을일금이십만원으로 매각하고 일약부호가된 함흥부성천정(城川町) 한염구(韓染九)(?)는수주일전부터 모사건의혐의로 함흥법원대판검사(大坂)의취조를극비밀리에밧고잇더니 지난이십팔일 돌연동검사국에 구인되여 목하엄중한취조를밧고잇다는데 내용은일체비밀에부처 알수업스나 흥미잇는사건이나 안일가하고 일반의주목이하고잇다

그女子의一生 【147】

婚姻篇 春園 作 夕影 畵

「압아요 그 이상한 학생말이지요 시무룩하고 잇는 아니오? 그 부자집 아들이라는?」

하고 금봉이도 인현이가 고등보통학교에 다닐 때에 잇더금 놀러오던 살시빗 대단히 희고 눈 가늘고 빗나던 학생을 긔억한다。그는 부모가 서양료리까지 식혀준다는것도 마다하고 웬 누더이 입은 늙은 중을 작은 사랑으로 불러들여서는 칠식을 가리한다 하야 그 부모가 설회를 한다던 말을 들은것도 긔억하고 썩 잘난 어떤 부잣집 딸헌테 장가들라는것도 실타고 하다던 말을 들은것도 긔억한다。

「옹 그 사람말이다。황괴현이 말이다。내가 그동안 한 일년째 황괴현이와 자조 만나지。그 집에 오는 늙은 중헌테 그 말을 물어보앗서。내가 팔을 뽑고 사람을 죽이는 헛개비를 본다는 말을 물어보앗지。요새에 와서는 그 헛개비가 더 자조 보여서」

「그래 그 늙은 중이 무에라고 해요?」

하고 금봉도 인현의 그 무시무시한 헛것을 눈 아페 그려보면서 뭇는다。

「그랫더니 그 늙은 중 말이 ── 어 그거 안 되엇수려。그것은 가까운 전생에 당신이 그런 일을 저질른 일이 잇거나 또 갓가운 장래에 그런 업보를 바들 일이 잇거나 한것이오、그런단말야。내생각에도 암만해도 그런것 가타。그 헷것이 전보다 자조 보이는것은 그때가 갓가와오는 뜻인것가타。」

하고 인현은 또 그 헛것을 보는지 먼허니 허공을 바라보고 잇다。

「아이 옵바도。웨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하시우? 난 듯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데。」

하고 금봉은 몸을 한번 떨며、

「그래 그것을 피해는 길은 업대요?」

하고 염려스러운드시 물엇다。

「업대。머 인과관계라나 업보관계로 꼭 짜 노앗다니까。」

「무어 그럴라고」

하고 금봉은 의심스러운드시 웃는다。

「그래도 가만 보니까 인과응보가 잇기는 잇나보더라。아버지를 보렴。아버지가 남의 재산을속여서 빼앗은 심아니냐。리창렬이랑 론문령이 맛기고 간것을 그냥 먹어버리고 말앗스닝。그리더니 재물을 못 지뎃징。지금 말 아니다。또 어머니덕을 그러케 만이 입고서 어머니를 그러케 소바하시더니 지금 어떤가 보아。말아니다。지금 어머니하고 사시는것이 지옥생활이어든。그리고 자식들은 다 이 꼴이고。또 네 남편 보렴으나 어떠갱。내생각에는 상해를 가도 잘 되지는아니할것만 갓다。그야 악한 짓을 하고도 잘 되는듯한 사람도 잇지마는 태허말 맛다나 길게길게 두고보면 다 제가 심근씨는 제가 거둔단 말이다。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도모지이 세상에 와서 하나도 마음대로 되는것은 업고、밤낫 마음놋지 굶지를 굶릴 일만 생기고、게다가 그 무궁한 헛것이 보여、도모지 압날에 큰 비극이」

「옵바 왜 그런 소리를 하시오? 설마 그럴라고。다 미신이지。」

「글세 요새세상에 나갓치 젊은놈이、또 신교육을 바닷다고 하는 놈이 이런 소리를하고 다니면 다 저 놈 미첫다고、미신엣 소리 하고 다닌다고 할줄도 아지마는 생각이 꼭 그러케 들어가는것을 어찌하니?」

「그러커든 그 태허가 하는 늙은중더러 면할 길을 가르처 달라지」

하고 금봉의 생각도 점점 인현의 불길한 생각에 끌려들어간다。

「태허말은 지금 생활을 버리고 깁흔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나 해보라고。도의 힘이 업의 힘을 이긴다나。업보의 약속을 깨트리는것은 도의 힘밧게 업다고。」

「그럼 그러케라도 해보시구려 옵바 마음만 편하게되겟거든。」

「그래 쉬으냐。아버지 재산상태가 저 꼴이니 식구들은 다 엇지하니? 내가 잇다고 쇠천 한푼 벌어들이는것도 엄지마는 굶어도 가티 굶어야지。그래서 전차 차장이라도 되어볼까。그보다도 경성부 소채입부라도 되어볼까。이런 생각도 해 보앗지。」

「그러케 어렵게되엇소?」

品質本位

花王石鹼 (화왕비누)

皮膚衛生과健康에대해 細心할季節이왓습니다

모든病魔의 最大原因는不潔로부터發生합니다

花王비누로늘 皮膚를 清潔하게 하시라

花王비누는 때를지우며 皮膚을 美麗하게할뿐안이라 強한除菌力을가지고잇씁니다

純粹度九九・四%

正價一個十錢

東京・花王石鹼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

七月三日부터

夏 背広三揃 白ズボン 出來上り品大奉仕

價格以上의優良生地에愼重裁縫

「確實低廉」이란期待에마즐特別奉仕

三中井 四階

奏効如神

鷄冠蚊香 (게관모기향)

鷄冠蚊香의絶大한信用은 實로그効力에잇습니다

・모기향을사실때에는불이오래타고효력이제일조흔『계관모기향』이라고차즈십시오

大阪土佐堀三 大日本除虫粉株式會社

月廿九日より 短期特別公開
特別奉仕料金 階下十錢均一

大都映畫超特作現代映畫
原作脚色……藤田潤一
監督……吉村 操
中野信二、河合菊子主演
ヨタモノ氣質
甲賀計二、宮城浩二、高村榮一、谷定子共演
植松勝兵、三島慶子

メトロゴールドウイン超特作提供
日本阪ジョージフイリツモーリス監督作品
妖姬グレタガルボ主演
間諜マタハリ
ジョンギルバート ライオネルバリモアー ルイズストン 共演
世界大戰の裏に危機の祖國をはらんで活躍する間諜マタハリ、妖艶花を欺むく女間諜炮煙と銃火の十字火愛と戰爭のグレタガルボ一代の傑作映畫

大都映畫特作時代映畫
製作指揮……河合德三郎
原作脚色……中畑一平
監督……中島寶三
桂章太郎主演映畫
情怨鹿の子くづれ
遠山龍之介、松村光夫、若月輝夫、月宮乙女、伊丹慶治、攝實久子 共演
故桂章太郎生前の代表的傑作劍劇

櫻井町 大正館

金本位復歸問題 ◎ 爲替安定과景氣

◎ 倫敦大學 로빈쓰敎授論點

以上과가튼 理由로볼수잇는데로 兩者間通貨安定은 實來實政策을 取하자는 結論에到達한바이 結論의意味를分明히 說明하야 둘必要가잇다 이는勿論法律的으로金本位를直時復歸하자는意味가아님은明白하다 英國의現內閣이던지또는他內閣이던지이것을行할수는업다 또그런일을해달나고치안는다 世界金融情勢가非常히混沌한故로 法律上의確定的安定에到達키까지는 相當히 用意周到한經路를經하여야할것으로 通貨安定의길을急히行하라는것이 반드시大規模의國際會議를하라는말이아니다 世界는勿論 主要國間의어떤程度의協調가 必要케되는하나 如斯한協定은 倫敦國際會議보다도 中央銀行總裁室에서成立하는것이좋을 것이라고본다

×

通貨安定에第一必要한것은英國當局者가磅의下落을阻止하는일이다 佛米와協定後現在市勢가까운位置로 磅을釘付식힐것이다 그리고그것이 無理업시 오래동안 維持되나안되나를알수잇게되기까지 爲替市勢를安定식혀둘것이다 如斯한政策은 勿論될수잇고 그런힘이政府에 업다고할수업다 또그리하는것이他金融中心地로부터 歡迎될것도事實이다 이政策은 佛米他의爲替低落防止를 援助하는일이되는同時에 平價切下論에 對抗하고잇는 米大統領도援助케되며또英國의 對外投資의非公式的制限이緩和되면 英國의 國際金融上地位를 [illegible] 것이다

×

이種案은相當히 警戒한것이나 그러라고 現在의爲替平價와 物價관계를 打破식히지안코 할수잇다고생각되며 特히一定의爲替市勢는 다만平衡資金의維持할수업지않을려게될것이다 相當額의爲替資金가 行하도록市場을誘導하여야할것으로 그것이 必要하다면 中央銀行의割引利率을變動케하고公開市場操作에 依하야그爲替市勢를 維持하여야할것이다 爲替平衡資金의增減은金本位下의中央銀行의金準備增減과 同樣으로생각하여야할것이다 萬若 이資金이 非常히 缺乏할 境遇는 割引利率을 引上하고 其他이것을 補足할 手段을 取하여야할것인데 勿論 이것을 一般이 조와하는것이아니라 一般은 低金利의 擴張期에 中斷되어잇슴으로 國際景氣恢復을 爲하야서는 一時的利益을 放棄하여야 하겟다는 正當한생각을 아직못하고잇다 그러나 國際景氣恢復이 國際信義를 無視하고잇는것은 利益보다는 큰問題이다

世界景氣恢復이 지금까지안된것은 英國이行하야온 政策의當然의結果인 與否는 물론다 그리고 萬若上述의 理論이正當하다면 이點이 問題가된다 英國이 國際經濟上의指導者인 地位를 恢復함에依하야 질머진義務를 遂行함으로英國에 讓한刑罰이아니오 景氣恢復을 爲하야서 不景氣로의 逆行을 阻止키爲하야서 第一必要한일이다 (終)

政府所有米中에 百萬石拂下를決定

最近米價高와關西水害로 農林省은不遠斷行

【東京電話聯合】農林省에서는 政府所有米二百萬石中 이미百萬石의賣却을 實行하엿는데最近의米價高에다가 關西九州地方水害地의 食糧米不足을보고 不遠 同地方에殘存所有米百萬石을 한번에賣却키로되엿다

朝鮮內米在庫量

玄米七十五萬七千七百石 正租二十三萬八千二百石 五月中計九十九萬石

五月中朝鮮內 各米倉利用狀況을보면 入庫數量이 玄米三萬二千二百九十五石 正租一萬三千百九石 計四萬五千四百四石으로 出庫數量은 玄米十六萬六千十石 正租五萬八十一石計二十二萬九十石인데 現在庫數量은 玄米七十五萬七千七百五十石(그中政府米 三十七萬九千八百五十五石) 正租二十三萬八千二百二十一石(그中政府米 七萬一千四百四十八石) 計九十九萬五千九百七十一石(그中 政府米 計四十五萬一千三百三石)이다

工業補助의 基礎資料收集

要補百卌餘工場

總督府商工課에서는 過般來工業補助의基礎資料로서各道에對하야 『將來有望한 工業으로서 經營難의것施設改善의可望이잇는것』의照會를發하얏는데 各道答申이왓다 이에依하면 上記의有望經營難改善餘地가잇다는 工場數가 全朝鮮百三十餘工場에達하야 朝鮮內中小工業의 現位置를明白히 말하고잇다 이것들中에主位를占한것은纖維工業關係로 在來織物製造人絹洋機、絹메리야스絹紬等資金難과 新工場施設의充實을보면크게發展할餘地가잇고製紙業 農具製造와如함도販賣機構와資本金에 深刻한困惱가잇스며電珠、琺瑯、蒸草、製粉等도모다 有望한素行을가지고서도 資金難이라한다 旣報와가티 商工課에서는 此等中小業에 對하야 育成助長키爲하야 工業補助費의 活用을 計圖할 計劃이라한다

『殖産契』監督

金組聯合會에서

總督府에서 立案中이던 殖産契는 財務局監督에 金組聯合會가 年三萬圓의 國庫補助를 受하야 各地方金組合에 設하고指導監督一切를 金組聯合會에서 行키로 決定하고위선 初年度는 當下六百七十九金組內에서 目下更生部落指導部落耕牛殖産契等을 實施키로되엇다 殖産契의 類似行爲를하고잇는 組合五、六十組合에 施行케하기로되엇는데 新殖産契는 組合地域內의 優良部落을主體로一契를組織하야 共同購入販賣利用事業을하게되엇는데 이代行決定에對하야 金組聯合會에서는 如左히말한다 殖産契는 聯合會가金組로하여금 行케할것인데 다만現在地方組合下에 部落單位로 實施하고잇는 指導更生部落耕牛殖産契等을 法人組織의契로 改組하야 이에實行力을 給할程度의일이다 이때문에 金組의 現組織을 大改革할 必要는업스나 監督指導의 關係上 그 係는新設할터이오 實施期其他는 未定이다云云

『國際商議總會』 (四)

目的、組織、重要性

그런데 國際商業會議所의首腦機關은 總會、理事會、國內委員會와 國際 本部이다 總會는 議決機關으로二年마다한번씩 열고 一九二一年倫敦에서 第一次會議이잇슨뒤로부터 羅馬、부랏쉘、스토크홀롬、암스텔땀、華盛頓、維也納의順序로 이總會의開催를 希望하는 世界의主要都市에서 總會 또는 理事會의決定에依하야 열고 今年의第八回總會가 巴里에 열닌것이다 그리고理事會는 執行機關으로 各國內委員會에서 選出되는 三名乃至 三名의理事와 會長、副會長 名譽會長 名譽副會長 會計 副會計 事務總長等職務上의 役員으로써 組織되엇다 理事가 有故한境遇는 代理理事가 理事會에出席하고 各國內委員會에서 選出된 理事와 代理理事의數는當該國의外國貿易總額에 依하야 定하는것으로 이것에는 國際商業會議所設立의發起人國인 英、佛、伊、白、米의五個國中 最少額의貿易額을 標準으로하고 一國의輸出入總額이 이標準額以上의나라는 三名、輸出入總額이 그二分一以上의나라는 二名、輸出入總額이그 二分一未滿의나라는 一名을選出키로되엇다

×

理事會는 二個年마다 總會에서 다음의 總會까지 任期二個年의 會頭一名 副會頭八名以內、會計一名과 副會計一名을 選任한다 오늘까지의 會頭는 佛米英伊白獨의 諸國代表를 거처서 和蘭『비리씽겐』氏가 一九三三年의 維也納總會以來 이번의 巴里總會까지의現在會頭로 되여온다

×

그러고 理事會에서 選任될五名乃至十五名으로써 常務理事會가 組織되야 理事會가 안열릴境遇必要에 따러서 開會하고 理事會에서 委任된事務를 處理한다 國際商業會議所의 事務局은 巴里第八區 크루·알벨街一丁目卅八番地에잇고 事務局長은 創立以來 再昨年까지는 그에도알·드레안氏이엇스나 그뒤는 피엘·빅샤氏가 繼承하여가지고 約十名의職員을 監督하고 各般의事務에 當하고잇다 事務局은 모든國際的機關과 密接한 聯絡을 取하고 잇는바 特히쥬네브의 國際聯盟事務局에는 常駐代表로바든·쥬리아드氏를 派遣하고 잇다

×

國際商業會議所에는 그外에 四十餘의常設 또는 特別委員會가잇고 各國內委員會의同意를어더 會頭가任命한 專門家가 各特殊한問題에對하야 調査研究하고 그結果가理事會와 總會에 上程審議케 되여잇다 이委員會의 主要한事項과 活動은 이번總會에잇서서 어떠한事項이 討議되엿는가를 說明하는것이될으로 다음에 그것을 敍述한다 —(終)—

歐洲向輸出不振으로 大連特産市場恐慌

◇…二日에記事禁止를解除

【電通大連二日發】大連特産市場은 歐洲向輸出의 不振과滿洲側의 資金難으로 五月初旬부터 崩落이繼續되든바 六月二十一日 華商老舖要盛泰의 破産閉店도繼續하야 二十四日 當地一流의銀號福順義도 閉店케 되엇슴으로 華商側에 一大恐慌이 생겨 各銀號錢莊의 推辭騷動을보고 二十五日까지 約二百萬元의 推辭騷動이잇고 特産은 大瓦落을 나타내여 이波紋은 滿洲全般에波及하고 倒産閉店者가 뒤를 잇대게되엇슴으로 日本側各銀行은 그救濟에出動하야 爲先恐慌을緩和하고 平靜케되엇스나 特産은 依然 軟調를示하야 特産業者의損失은 一千萬圓以上에 達할것이라고한다

金融에緩慢?

公債買付가旺盛

【電通東京電話】月越後의金融市場은 압흐로도繼續하야 緩慢이豫想됨으로 市中銀行側의 日銀所持公債에對한 買付는 繼續하야旺盛하고 日銀에서는 벌서四分米券一千七百萬圓의 受渡와米券四分利 六百萬圓의 豫約 合計二千三百萬圓의 賣却이된바 地方資金의還流에伴하야 今後도一千萬圓級의賣行이 잇슬것으로豫想된다

貯炭의總數量

六月十日現在

【鑛業聯合會調査】六月十日現在의 全國積出港과 四大市場貯炭高는 다음과갓다고한다 (以下單位千噸)

		比前月末	比前年同期
積出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北海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大市場(京濱、名古屋、大阪、神戶)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港頭市場 貯炭總量을 [illegible] 五一七萬으로 前月末보다 五七八萬의增加、前年同期보다 一七三、二二六萬減의 數字이다

人絹聯合會 操短에着手

封緘輸出各一割實行

【電通大阪電話】人絹聯合會는 一日로부터 操短에入하얏는데 生産及輸出能力에잇서서 優劣이甚한各社는 二割操短率을如何한境遇에適用할가注目되는터로 今回各社共히 一齊히封緘輸出도 各一割을 實行키로決定하얏다 右操短에依하면

一、輸出一割分은 實際輸出注文이업서도 指定倉庫의貪入은倉荷證券으로하고 右證券은 聯合會에保管하야 注文이잇슬때輸出할려고 從하야 輸出注文이업는限 製品은倉庫에保管되나 그만큼日本內地出荷가制限을受하는結果 市場壓迫은除去되리라한다

一、錦華 庄內川 日毛 日淸、三重 五社는 六月中現在의錘數七千錘(日產十噸)未滿으로三千錘를控除한後 操短率의適用을受하리라한다 二工場以上을有한社는 一工場만을封緘하지안코 各工場을分割하야하고 休錘中破損部分을修繕할터이라한다

蘭印暴利

取締令通過

【電通바타비야一日發】蘭印政廳이 議者부터 國民參議會에 提出中의暴利取締令은 一日 同參議會를 通過하엿다

瓜哇銀行利下

【電通바타비야一日發】瓜哇銀行은 지난六月三日 公定割引步合을 一分올리여 四分五厘로한바 一日以後右步合을 五厘내려서四分으로한것을發表하엿다

"鮮航不穩" 徹底企圖

仁川荷主代表 京城側과交涉

仁川郡貿商組合에서는 雖者仁川穀物協會와 提携하야 鮮航同盟會에對한 移出朝鮮米의不穩과 한가지로 日本內地에서 朝鮮에 移入하는 諸雜貨의不穩을 決議하엿는데 그徹底를期키爲하야京城都貿商同盟 商工聯合會와도提携케되야 仁川側의代田繁治、杉野榮八、加藤平太郞의諸氏는 二日 入京하야 朝鮮호텔에서 京城側의戶島、富林、高居의諸氏와 會見協議하엿다고

殖銀頭取重任

◇…二日正式指令

有賀殖銀頭取는 七月一日 任期滿了이든바 二日으로써 四次頭取任命의 發令이잇섯는데 이에對하야 同頭取는 다음과가티말한다 殖銀에드러와 理事二年 頭取十五年間이되엇고 이번에 또重任케된것이다 當行創立當時로부터는 一千八百餘萬圓에 不過하엿다 오늘에 貸出은 四億圓에 일흔다

各銀行總會日

地場銀行의定期總會는 八月中旬열릴朝銀、殖銀(東京)을빼여노코 모두六月下旬에 例年同日이될것으로 今年은 各銀行協定이잇슨뒤 東一(廿三日)漢銀(廿三日)商

買氣不續商狀

買妙味는全無

東京의主力齊藤이 洋行키爲하야 商主을處分하기시작하야 約五六千枚賣退하것이動機가되어 昨後場은 東新中心으로急反騰을演하얏스나 원체이런것으로市勢가陽轉될것이아니던로 買物이繼續될性質의것이아니오 東新百三十七圓臺、大新八十五圓臺로올라보았다 日產權利落으로 人氣無勢이엇는바 上期貿易은 輸出市場萎縮으로 今後推移가 重視되며 約增稅念慮、證券界全般的整理未了、海外財界不安等惡材料가잇는만큼 結局에잇서서買할市勢는아니오 大突込으로援慘한場面을보이어 完全底入되던지 그러치안으면 低迷裡에不知不識中價位를 底下식히던할것으로夏枯閑散期에入한만큼 今後의市場寂寥가念慮되는情勢이엇다

日產權利落과 當所入札結果

日本產業會社는 資本金을二億圓으로增資하고 七月五日現在株主에게 一對一株의比로써 二百一萬千七百株(增資新株十二圓五十錢拂込)를 配定키로되어 朝取證券部에서는 七月二日前場부터新株權利落으로 賣買하얏다 當地短期昨後引은 七十四圓九十錢이엇는데 二日前場寄値는六十八圓五十錢으로六圓四十錢低이엇다(東株市場 日產新株氣配는 二十九日과七月一日은 十八圓五十錢、二日前九時氣配는十八圓七十錢)그럼으로 新株拂込十二圓五十錢을除하고푸레미암 六圓四十錢이되는셈인데 朝取市場에서는 二日前第大引後場上에서 入札値의範圍를 最高二十二圓五

今日財界 (二日)

◆米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三等米 一石 (京城)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改良 一石	[illegible]	不變
一斤 價 在米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銀價

	一匁買	
金	十圓十錢	十圓三十錢
銀	二十六錢〇厘	二十八錢五厘

◆株

	今日止	比前日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大低

◆商品 (先限單位)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고무 現	[illegible]	先 [illegible]

經濟界消息

銀(廿四日)貯銀(廿五日)으로決定되엿다고

○加藤朝銀總裁는四五日中渡東 朝銀總裁는 決算도끗낫슴으로 決算案에對하야 大藏省方面의諒解를어드라는 用務와總會出席次로 四五日中에渡東할터이라고

○有賀殖銀頭取는十六、七日頃渡東 四次重任한 有賀殖銀頭取는 米穀生産費調査會가 廿日 열리기로決定하엿슴으로 同會出席과 關係方面에對한 重任人事等 十六、七日頃渡東할豫定이라고

株式 買氣殆無 低落

商況 (二日)

前場保合

昨後場暴騰되든뒤를이어今前場은 別無刺戟剛이오 維騰力이업서鈍重하고 細刻保合이엇스니 即昨後引에比하야 東新二十錢高인 百三十七圓七十錢 大新不變인八十五圓丁朝新二十錢高인 二十五圓二十錢、日產六圓五十錢低인 六十八圓四十錢(權利落)에各大引

後場低落

後場은 日產續落으로 全般的不振이엇스니 即前引에比하야 東新七十錢低인百三十七圓丁、日產 一圓三十錢低인 六十七圓十錢、大新六十錢低인 八十四圓四十錢 朝新二十五

期米 少押後에 昻進

前場小押

昨後場阪地三十圓二十二錢止와共히 二十六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圓十八錢인 四丁瓦落을據하고 二十八圓十錢인六丁低로場을始한後阪地○四錢으로 反落함을따라 ○二錢까지下押하더니結局阪止十一의反高를入하야 十錢에場을止하엿다

後場昻進

後場은二十八圓十六錢에 六丁高로 始場後二節二十錢으로 五節二十五錢에昻進이고 別關가리止場하다

東京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四、五〇 △一
△四分利不申 △二回四分利不申
△佛貨四分利 一八六六五
△滿洲工廠 [illegible]
△地下鐵新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賣方	買方	取組高
日產	三六	五六	五九、四九〇
東新	四〇	五二	六七、六七〇
大新	三六	五四	三二、六四〇

實物前場取引

賣買高百八枚

◆入札者 十六人
◆總申込數 五千四十八株
◆當籤數 千三百八十株
最高 十九圓三十錢
最低 十七圓七十錢
平均 十八圓○七錢九厘
權利 五圓五十七錢九厘

十八圓二十九錢으로豫定하엿고 入札…

又復拂下說

市勢隱然伸惱

第二次政府米三十五萬石拂下에對하야 去月二十九日로써 三十四萬石의 賣却決定을한 實로好成績을 告한後 政府는 繼續하야 又復 百萬石을 拂下한다는說이 低く 漲한하야 關西地方의 水害로 자못 强硬하는 市勢가 今朝부터 伸惱의 狀態를 呈한다 勿論 百萬石 拂下가 實現되는때는 第一次 二次의 五萬 …

高價엔買警戒

大勢의自然?

唯一한 强材로 信賴하는 硬派로서도 政府의 拂下가何時에突然實行할지몰라서 警戒不怠하는中이다

連月大阪米의 壓迫을受하여오든것헤 去六月부터 渡米調達難 …

金.銀.白金 地方注文代金引換發送 御利用先 京城府明治町 京城德力 電話本局 3939 振替京城 234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七 電話長 九一六 六九三 一一六五

福 株式 朝取 期米 小林取引店 京城明治町

株 市場六感

東京齋藤이 買收하는바람에 昨後場買騰力이엇스나 今前場은 當地는 今朝부터 新株權利落인데 前場寄付는 昨後引보다 六圓四十錢低 前場大引後入札結果 權利가단五圓五十七錢▲權利落인때문이라하나 日產의六十八圓臺는어쩐지 作年高價百四十餘圓에서 半價도못되다 ▲何如間株界는 新規모르는衝擊을줄 好材料가突發치안는限急好轉은 거의無望

米

今回關西地方의 水害程度는 그얼마나 이오 설령大暴落이업다드래도 夏枯閑散의不振이繼續되기쉬운 形勢이니 낫잡이나자게될가겁정 ▲市勢는幾分加味하엿슬뿐으로 돌이혀軟態에傾하는光景 ▲그리자政府의 百萬石拂下說이俄然擡頭하야 今朝부터 宛然히軟弱 ▲그러나低落의步調는 겨우十餘丁에 止할뿐으로 結局頭重의觀을呈한다 今後가果如何 ▲政府米百萬石이 拂下되다할지라도 渡米用에供할品格이못되는만큼 期近의頑強은依然 難免일모양 ▲期近이 强硬한때는先限도 亦追從할것은 事實인즉 買安心하다고도 謂할수업는걸 ▲그反映으로는 政府米가 繼續拂下되는때는 前途需給難을 緩和케할모양인즉 買安心도亦難 ▲그러면可謂 안팍곱사등의格으로 當分難伸難押? ▲天災戰에入한 今日의 市勢가如是하다면 兩軍共히 用武할餘地도업서지고 말모양 ▲要하면本年의 稻作이豐作을 告하는때는 大勢의 波瀾이업슬것을可期

仁川續騰

昨夕來特種品에 對한 入荏가相當하얏스나 依然 갑이잇지안허 取引은傍觀되고市況은續十錢高唱의㊀三等二十八圓二十錢四等二十八圓丁 一等白米

京城續騰

繼續하야當用側의買氣旺盛하야氣配更히十錢高依 임丸仁三等二十八圓二十錢 四等二十八圓丁 一等白米二十圓五十錢

各地正米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賣方 中東側 永岡 東京側 三木側 地場乘換 地場 正米側 西側乘換 買方 地場一 品側 神戶側 株式側 田中貞乘換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 ◆賣方 ◆買方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釜山一息

直地의實物의出廻가 안되는 期米商勢가 繼續하야 市況을 [illegible] 二七四以의取引이 잇섯스나 氣配는不變에 一等二十八圓二十九圓丁 一等白米十二圓三十八錢

大邱小締

期米高를 反應 今朝는賣方의形勢에 取引이적고 市況은 多少強하게 推移되어 氣配一錢 下押인 角ㇷ三等二十八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一圓八十錢

群山同調

期米高에 共鳴하야 實際의出廻가 多少 緩慢하야 消極的인 日本內地의買氣가後退하야 一方生産地實物도 月前에두고 枯渴狀態로經續하야 閑況商狀을 呈한 菱ㇷ三等二十八圓二十五錢 一等白米十二圓四十錢

木浦不變

拂下實行說로日本內地의 入注가杜絕되엇스나 一般所持는 阪地定期의 期近이依然堅調로 推移됨으로 依然賣惜態度를取하야 取引殆無의狀態인 丸ホ多脈三等二十九圓七十錢 四等二十八圓五十錢 雄町三等二十八圓丁 一等白米二十一圓五十錢

南浦閑散

期米高를 反映하야 賣方이極度로 氣乘치안허 市況은 閑散裡에保合인 ㊉龜尾三等二十八圓三十錢 四等二十八圓十錢 一等白米十一圓五十五錢

金融 (二日)

◆海外經濟 (一日)
◆朝鮮銀行勢 (一日)
◆日本銀行勢 (一日)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米穀 (二日)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商品 (二日)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絹布
◆日本蠶絲市勢
◆지카고期貨
◆鐵油沖價
◆滿洲商況
◆豆粕沖價
◆大連特産市勢

株式 (二日)

◆朝取短期
◆鑑定 代引日步
◆大阪長期
◆大阪短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短期

期米 (二日)

◆朝取期米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東京期米
◆朝鮮內各地期米

商品 (二日)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絲
◆大阪砂糖
◆海外砂糖